

G.P 5 0 6

- 한 경찰병의 이야기 -

원작 공수창

각본 공수창 필영우

감독 공수창

제작 (주)모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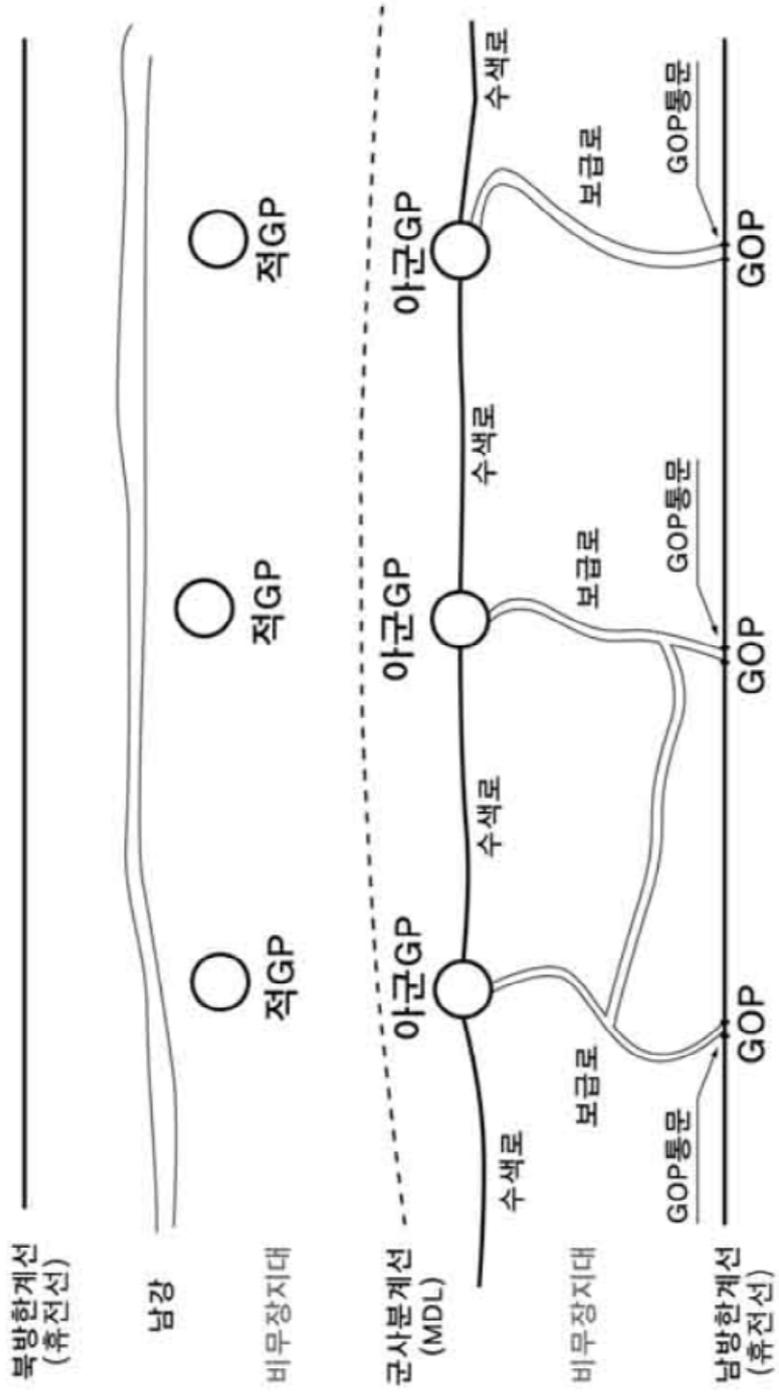
GP(GUARD POST): 감시초소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 사이의 4km를 비무장지대(DMZ)라 하여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있는 감시초소를 '전초(前哨)'로 부르는 'GP'라 한다. GP는 감시초소로서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즉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초소로서 통상 철책부대의 수색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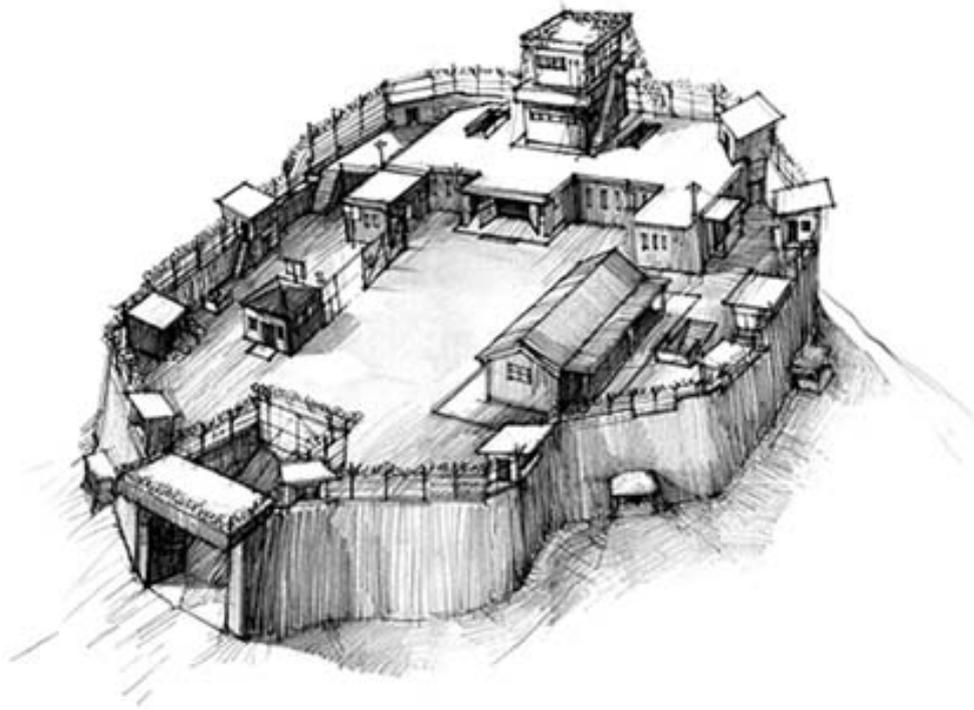
통상 1개의 연대에서 4개의 GP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 GP에는 1개 소대 병력이 들어가며 3개월씩 근무를 서며, 특별한 일 없으면 외출, 외박, 휴가는 불가능하다. GP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군인들도 특별한 작명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으며 비무장 지대 내에 들어오려면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항상 헌병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GP근무는 보통 3개분대가 로테이션식으로 전반야, 후반야, 비번식으로 돌아가며 근무를 서며, GP내에는 K-4고속 유탄 발사기, K6 기관총, 57mm무반동총 등 중화기들이 배치되어 있어 북한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GP근무자들은 적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근무시에는 항상 실탄을 창착하고 방탄복을 착용한다.

비무장지대 내 GP 구성



[GP 전체 외부도]



[GP 전체 내부도]



등장인물

<과거 인물>

1. **GP장**: 참모총장아들. 육사출신 중위로써 506 GP장이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육사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으며, 총장아들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녀 주위에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고 늘 왕따 아닌 왕따로써 지내게 된다. GP소대원들도 이런 소대장을 무척 꺼려한다. 제멋대로이고 우유부단하며 부잣집 아들답게 고급스러운 취향이 묻어난다.
2. **부GP장**: 책임감이 강하며 충성심이 강하다. 소대원들을 형, 동생처럼 보살피다가도 때로는 엄한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소대원들과의 사이가 좋다. 제멋대로인 총장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자신보다 상관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른다. GP장과의 묘한 갈등을 이룬다.
3. **권의무병**: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강상병과는 동기이며 겁이 많아 군 생활에서 강상병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모든 사건을 조작할 만큼 대담하고 용의주도한 면도 있다. 결국엔 신원이 밝혀지고 GP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4. **강상병**: 어찌 보면 툭아이고, 어찌 보면 귀여운 구석이 있다. 남의 일에 잘 끼고 의협심이 있어서 내무반의 대소사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모두가 죽어야만 GP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무리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소대원들을 죽이는 행동을 감행한다.
5. **주병장**: 말년 병장, 리더십이 강하다. 막판 하극상을 주도하며 그 들을 이끈다
6. **정병장**: 분대장으로써의 책임감이 강하며 마음씨 착한 병장이다.
7. **마병장**: 날렵한몸매, 군생활이 천직이라 여기는 병장 GP원들에겐 가장 무서운 고참이다.
8. **장영재 병장**: GP소대원
9. **신영돈 상병**: 취사병이다. 꼴통 짓을 한 강상병을 취사보조로 부린다
10. **윤광일 상병**: 주병장과 함께 하극상에 참여하며 살아남으려고 한다
11. **박 훈 상병**: 강상병과 마음이 통하는 둘도 없는 동기.
12. **홍원규 상병**: GP소대원
13. **도윤철 상병**: GP상황병
14. **김인호 일병**: 서울출신이며 뺨질이 스타일, 소대장에게 죽임을 당함
15. **최범환 일병**: 경상도 출신, 개념이 없지만 고참들에게 항상 웃음을 안겨주는 인물
16. **라동진 일병**: 취사보조 취사장에서 일하는 것이 늘 불만이다
17. **천세민 일병**: TOD병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18. **권기중 일병**: 마병장,박상병과 함께 체초작업을 나갔다. 감염이 되어서 돌아옴
19. **서철민 이병**: 군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병. 마지막에 자살을 함
20. **조용선 이병**: 자대 배치를 받은지 얼마 안된 신병
목욕탕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감금됨.

등장인물

<현재 인물>

1. **노수사관**: 철칙과 원칙, 신념이라는 소신을 믿고 군생활을 임하는 군인다운 군인
부인의 죽음을 뒤로한채 오로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엔 어린 아들의 얼굴을 뒤로한채 운명을 달리한다.
2. **군의관**: 대위이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장교, 깔끔 하며 시니컬해서 노수사관과
성격상 대립을 하게 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노수사관과 뜻을
함께 한다.
3. **윤하사**: 노수사관을 스승이라 생각하며 보필하고 있는 충직한 군인
마지막에도
살기위한 본능보다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더 생각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노수사관과 비슷한 군인.
4. **방상연**: 수색소대장,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수사관과 군의관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됨, 대충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인물
5. **김창록**: 선임하사,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전형적인 군인, 뭐 특별한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하여 군대에서 평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 막판 노수사관과 대립을 하게 된다.
6. **곽성훈 상병**: 안상병과는 군대 동기 극 중반부에서 안상병을 죽이고 감금됨
7. **안주영 상병**: 곽상병과 동기, 극 중반부에서 곽상병에게 죽임을 당함
8. **정민재 이병**: 입대한지 얼마안된 앳된 얼굴 선한 얼굴이다. 마지막 부분에선
군대에서 죽는게 억울하여 살기위해 노력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9. **최영철 병장**: 최군견병, 견공헨들러 자격증이 있는. 그래서 군견병이 됨
10. **이경훈 병장**: GP에 들어오자마자 통문경계를 서게됨
11. **양승수 상병**: 의무병이다. 뺨질이 스타일이고 모든일을 후임병 김의무병에게 시킴
12. **변수열 상병**: 운전병이다. 덩치가 커서 무서울것 같지만 착하고 여린 인물
13. **조우혁 상병**: 상황병 무전병인데 작전을 나가면 상황병임을 수행한다
14. **백광석 상병**: 운전병, 강상병 보초서다 죽음을 맞이함
15. **김영섭 일병**: 의무병, 군의관을 도우며 임무를 수행함
16. **민재용 일병**: 60트럭 운전병
17. **선민우 일병**: 최군견병과 함께 군견을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병
18. **구해남 일병**: GP에 들어오자 마자 이병장과 함께 통문경계를 서게됨
19. **황동욱 일병**: 수색 대원이며 TOD병

Prologue.

칠혹같이 어두운 밤, 폭우가 퍼붓고 있다.

번개가 내려치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 사이에서 위장무너를 뒤집어쓴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 쏟아지는 빗물이 그대로 무너진 모래 방벽 사이로 흘러내리고, 철조망 위에 걸린 찢어진 옷자락이 비바람에 미친 듯이 휘날린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어둠에 잠겨 있는 건물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혔다가 사라진다. 순간, 마치 잘려진 목처럼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주인 없는 철모. 인기척 하나 없는 건물 안의 모습은 암흑 속에 묻혀 있다. 이따금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안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진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다.

복도 끝의 출입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손전등 불빛 하나가 빠끔이 들어온다. 둘, 셋, 넷...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꼬리를 물고 뒤따라 들어온다.

반대편의 출입문에서도 손전등 불빛이 마치 포위를 하듯 들어온다.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찬 복도를 조심스럽게 밟는 군화발들, 디딜 때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진다.

시커먼 복장에 방탄조끼까지 걸친 수색대원들이 손전등이 달린 K2기관단총을 겨누는 채 긴장된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서 불빛. 피로 흥건한 바닥에 예리한 흥기로 난자당한 채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한 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다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발을 발견한다. 다리부터 천천히 훑어 올라가는 불빛, 거기에는 손에 커다란 도끼를 들고 피 칠갑을 한 사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의 흰자위가 잔뜩 보이도록 불빛을 노려보고 있는 사내, 그 악마 같은 모습에 기겁을 하는 수색대원.

“꼼짝 마!”

정적을 깨는 소리와 함께 공간 여기저기를 훑던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사내를 향한다. 사격자세를 취하는 수색대원.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마치 사내를 포박한 것처럼 보인다.

예리하게 갈려진 도끼날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똑똑 떨어진다.

손전등 불빛을 쏘아보는 사내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머물다 사라진다.

그 모습에 진저리를 치는 수색대원, 이때 뇌성과 함께 번개가 번쩍인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처럼 건물 안의 참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긴다.

서서히 사내를 향해 다가가는 손전등 불빛.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G.P병커, 마치 중세 유럽의 성처럼 보인다.

번쩍거리는 뇌성과 함께 한 발의 총성이 어두운 적막을 찢는다.
탕!

1. 사단 상황실 - 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단장.
사단 참모들이 긴장한 채 도열해있다.

사단장

어디야? 어디서 그런 거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연대장이 모형도 앞에서 지시봉을 든 채 브리핑을 한다.

연대장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여기... 506G.P입니다.
506G.P는 우리 쪽 철책과는 1.2km 떨어져 있고, 북쪽
G.P와는 직선거리로 300m가 떨어져....

사단장

(말 막으며) 집어치우고... 누구 짓이야?
북쪽 놈들 짓이야? 희생자가 얼마나 돼?

연대장

보고에 의하면 외부 침투 흔적의 징후는 없고...
아마 내부...

사단장

그럼... 우리 애들끼리 그런 거야?

연대장

...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사단장

똑바로 얘기해봐 똑바로!... 그런 거야, 아니야?

연대장, 찢찢매며 어렵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사단장

(뒤늦게 감이 온 듯) 잠깐, 506이라면... 그...

연대장

(난처한 기색으로)... 예, 맞습니다.

무너지는 사단장.

2. 장례식장 - 밤

중년여성의 영정사진이 화면 가득 잡힌다.

상주인 듯한 중학생 하나가 문상객과 맞절을 하고 있고

중년의 사내는 벽에 기대ن 채 눈을 감고 앉아있다.

검은 양복 차림의 풀어진 넥타이, 면도를 하지 않은 까칠한 얼굴.

사내, 눈을 뜨면

장교용 판초우의를 팔에 걸친, 대령 계급장을 단 엘리트 타입의 군인이 서있다.

벽에 기대ن 채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사내.(이하 노수사관)

3. 장례식장 주차장 - 밤

미친 듯이 움직이는 와이퍼, 본넷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

지프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축축한 침묵에 빠져있는 두 사람.

빗소리만 요란하다. 빨강게 타들어가는 담배...

박대령

전원이 몰살당했다. 중태에 빠진 생존자가 한 명 있는데
현재로선 그 놈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거 같아...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전부다.

노수사관

.....

박대령

내일이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 질 거야....

이 사건 땀에...

난 아예 한 시간 전부터 전화기를 꺼 놓았네..

내게 전화한 장군들 별만 모아도 수 십 개는 될 걸세...

말이 없는 노수사관.

박대령

발인이 내일이라며?

노수사관

예 ...

박대령

(우산을 쓴 채 서 있는 수사관의 아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많이 컸군...

노수사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몇 G.P입니까?

박대령

506 G.P.

노수사관

506 G.P라면?

박대령

(한숨을 쉬며) 그래... 총장 아들이야...
그 애송이 소대장이...

잠시 정적이 흐른다.

밖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부관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뛰어온다.

부관

(핸드폰의 한쪽을 손으로 막으며) 사단장님이십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두 사람.

난감한 표정의 부관.

박대령

그 녀석 본 적 있나? 그 애송이 소대장 놈 말야...

노수사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래서 오셨군요...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보는 박대령.

노수사관

손에 피 묻히려는 친구들이 없어서...

노수사관, 계속 전방을 주시하던 시선을 거둬 박대령을 쳐다본다.
잠시 팽팽히 시선이 마주친다.

노수사관

윤하사!

밖에서 부관과 함께 비를 맞고 서 있던 윤하사가 달려온다.

윤하사

예...

노수사관

내 군복 좀 가져오지...

박대령

여기... 가져 왔네... (군복을 건네주며) 내가 어찌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밤 뿐이야... 오늘 밤이 지나면 온 사방 천지에서 다 달려들어 지들 유리한 대로 사건을 짜 맞추려구 할 거야... 그 전에 진상을 밝혀야 하네...

담배를 피워 무는 노수사관.

박대령

조심해... 자네 손끝에 장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구만 있진 않을 거라구...

노수사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대령

(쳐다보다가) ... 잘 알면서 왜 그래? ... 그러니까 진급을 못 하는 거야. 명심해... 시간은 오늘 밤 뿐이야.

디지털시계가 10:03 가리킨다.

차에서 내리는 박대령, 부관이 얼른 우산을 받쳐준다.

차에 올라타는 윤하사.
조수석 쪽으로 걸어오는 박대령.

박대령
부탁한다...

노수사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힐끗 쳐다본다.
우산을 든 채 쳐다보는 아들.

노수사관
뒤해... (윤하사에게 출발을 재촉한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지프를 계속 쳐다보는 아들.

4. 지프 - 밤

폭우를 뚫고 달리는 지프. 아슬아슬한 산길을 달린다.
군복 차림의 노수사관,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 없다.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운전을 하는 윤하사, 와이퍼 소리만 요란하다.
비포장 언덕을 올라가는 지프.
뒷바퀴 사이로 진흙을 토해내며 언덕을 넘어선다.
저 만큼 투광등을 밝힌 검문소가 나타난다.
멈춰서는 지프, 윤하사가 서류를 보이자 차단막을 열고 거대한 철문을 열어젖힌다.
끼익, 소름끼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리자 천천히 움직이는 지프.
카메라 붐업 하면, 대낮같이 밝은 투광등이 G.O.P철책을 따라 능선을 그리고 있다.
쏟아지는 비에 젖어있는 휴전선 철책.
등화관제를 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지프.

5. G.P 내무반 - 밤

평평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선혈이 낭자한 사건 현장과
널브러져 있는 사체들이 사건의 참혹함을 말하고 있다.

군의관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는 사체를 가리키며)
그래... 거기 잘 찍어... 절단면이 잘 보이게...

사체들의 사진을 찍고 기록해 나가는 군의관과 의무병,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서늘할 정도로 사무적인 모습으로 사체들을 조사한다.

이때 부산한 발걸음과 함께 몇 명의 병사들이 내무반으로 들어온다.
뭘 하는지 널브러져 있는 사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사체를 뒤적이는 수색대원들,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다. 군의관이 한 사체를 살펴보는데

최근견병

실례한다... (사체를 슬쩍 뒤적이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수색대원2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엎어져 있는 사체를
진저리치며 들척거리는 모습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군의관.

군의관

개판이군... 군발이들이란...

6. G.P 상황실 - 밤

마치 이등병처럼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수색소대장.

수색소대장

예... 지금 찾구 있는 중임다...에...

찢찢매며 통화를 한다. 이때 선임하사가 들어온다.
결눈질로 슬쩍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선임하사.

전화 (E.)

소대장 하나 찾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려?
군복이나 인식표를 보면 되잖아.

수색소대장

그게 말임다... 군복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시신들이 많고... 군번줄 역시...

전화 (E.)

(목소리에 조급함이 잔뜩 묻어난다.) 휴... 미치겠구만...
야... 어쨌든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구...

수색소대장

그게 말임다... 군의관 말로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사체만 훼손될 뿐이라고...

전화 (E.)

아... 이 시발 도대체.... 댔어! 다 관두고...(못마땅한 어조로) 빨리 시신이나 수습해서 출발시키라구.

수색소대장

그게 말임다... 군수사대에서 무전이 왔는데 말임다...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는...

전화 (E.)

(드디어 폭발한다.) 야... 이 개새끼... 지금 사단본부가 발각 뒤집혀졌는데... 뭐 어찌구 어째!
(이때 누군가 전화기를 가로챘는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나... 사단 인사처장이다.

수색소대장

총성, 중위 방상연임다!

전화 (E.)

총성이고 지랄이고... 지금 당장 출발시켜... 생존병 그 새끼도 함께. 알았나!

수색소대장

예... 알겠습니다!

7. 지프차 안 (G.P 연병장) - 밤

차창 밖으로 빗물에 젖은 관초의가 불빛에 번들거리더니 수신호와 함께 지프차 앞을 막았던 수색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비켜선다. 철문이 열리며 천천히 움직이는 지프차. 어두운 연병장 너머 거대한 성처럼 시커멓게 자리 잡은 G.P 병커.

8. G.P 입구 - 밤

어두컴컴한 병커 속으로 들어가는 수사관과 운하사.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찬 음산한 복도, 침침한 형광등 불빛,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 “모두 죽여라” 라고 벽에 핏물로 쓰인 글귀를 보는 노수사관. 내무반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정이병) 노수사관을 스치고 나가 병커 입구에서 토악질을 한다.

9. G.P 내무반 - 밤

내무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온다.

내무반으로 들어서는 노수사관과 윤하사.

침침한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 바닥에는 피 묻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다.

선임하사

일단 시체들부터 담도록 해! 무조건 쓸어 담지 말고!

토막 난 사체는 전부 다 따로따로 챙겨.

부산하게 사체를 수습하고 있는 수색대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침, 검은 지퍼 백에 담긴 사체를 들것에 싣고 수색대원들이 복도로 나오자

노수사관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

윤하사

(발끈해서) 이것들 시발... 뭐야 이거...

쳐다보는 선임하사, 다가와서 노수사관에게 경례를 한다.

윤하사

우정... 전화까지 했는데 이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선임하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어찌라구? 본부에서 난리

벼락을 치는데... 군대 생활 하루 이틀 해!

윤하사를 제지하는 노수사관.

이때, 수색대 소대장이 내무반으로 들어온다.

수색대 소대장

온다는 연락 받았습시다. 방중됩니다.

노수사관

생존자가 있다던데 ... 군의관은 어딴습니까?

10. 앰블런스 (G.P 연병장) - 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연병장에 서 있는 3/4톤 앰블런스 트럭,

하얀(빨간) 십자가 마크가 빗물에 더욱 선명해 보인다.

앰블런스에 들어서면 노수사관 일행.

침상에 누워있는 살인마는 한 눈에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침상 옆에 앉아서 MP3(혹은 PSP)를 들으며 책을 보는 군의관. 수사관 일행에도 아랑곳없이 책장을 넘긴다.

수색소대장

군수사대에서 오셨습니다.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책에 시선을 두는 군의관.

노수사관

사단 수사대, 노성규 원합니다. 상태는 어떨습니까?

군의관

(계속 책에 시선을 둔 채) 글썩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윤하사는 그런 군의관이 못마땅한 눈치다.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노수사관, 시트를 젖혀 상체를 더듬는데 인식표가 없다.

수색대 소대장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원 파악을...

노수사관

다른 생존자는?

수색대 소대장

예... 이 친구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군의관

(천천히 리시버를 뽑으며) 용의자이기두 하지요...

(시계를 보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병에게)

수열아 아직 멀었니? 빨리 가야지...

변운전병

예... 금방 끝납니다.

다시 리시버를 귀에 꼽는 군의관.

‘뭘 소릴 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노수사관.

윤하사

가다니... 어딜 간다는 겁니까!

군의원

(여전히 책을 보며) 그건 나보다 방중위에게 물어보지 그래.

수색대 소대장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본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노수사관

(무덤덤하게) 윤하사...

윤하사, 아주 익숙한 솜씨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살인마(강상병)의 얼굴을 찍는다. 사진을 뽑아 상의 포켓에 집어넣고 나가던 노수사관, 걸음을 멈춘다.

노수사관

방중위님!

수색대 소대장

예!

노수사관

앞으로 506 G.P의 인원 통제는 수사책임자인 내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G.P밖으로의 이동병력은 일체 없습니다.

난감한 표정의 수색대 소대장, 군의관을 슬쩍 쳐다본다.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는 군의원.

11. G.P 복도 막다른 곳 - 밤

후두둑, 천장에서 떨어지는 붉은 점액질.

시커먼 머리털이 붙은 피 묻은 살점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정이병의 머리위로 투둑, 떨어진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물러서는 정이병.

옆을 지나던 노수사관이 플래시로 천장을 비춰본다. 바닥에는 테드라인이 그려져 있고 머리칼과 엉겨 붙은 뇌수덩이가 천장에 아직 젖은 채로 덕지덕지 붙어있다.

치를 떨며 머리에 들러붙은 핏덩이들을 떼어내는 정이병.
데드라인과 천정을 플래시로 번갈아 비춰보는 노수사관.

12. 몽타쥬 - 같은장소, G.P 복도 막다른 곳 (과거) - 밤

피범벅이 된 도끼자루를 끌고 오는 살인마.
G.P 복도에 푹푹 떨어지는 핏물.
벼락이 내려칠 때마다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사체들이 보였다 사라진다.
막다른 곳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서이병.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려있다.

살인마 (E.)

철민아... 어디 있니? ...

숨죽인 채 숨어있던 서이병,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이미 얼굴 바로 앞에 와 있는 살인마!
눈이 마주치자 히죽 웃는다.
으악! 경악하며 뒤로 주저앉는 서이병.
천천히 도끼자루를 치켜드는 살인마.
무기력하게 무너지던 서이병, 끝내 손에 든 소총을 입에 물고는 방아쇠를 당긴다.
탕! 총소리가 찌렁찌렁하게 G.P내부를 흔들고
총탄이 뚫고 나간 서이병의 뒤통수가 척, 천장에 들러붙는다.

13. 같은 장소, G.P 복도 막다른 곳 (현재) - 밤

잔뜩 울상을 한 채 흡착지를 바닥에 깔고 있는 정이병.
안상병, 광상병은 훨씬 수완 좋게 흡착지를 바닥에 늘어놓는다.

광상병

(고개를 저으며) 미친 또라이 새끼, 사람들 다 죽여
놓고선.. 지는 감옥가기 싫으니까 자살 했대매?

안상병

아직 안 죽었어. 그런 새끼는 잘 죽지도 않아요,
독한 놈. (코를 싸쥐며) 씨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석유까지 뿌려대고... 몇 드럼이나 뿌린 거야 대체.

광상병

설마 이 땀에 휴가 못 가는 거 아니겠지... 야, 고문관!
넌 그냥 닦기나 해.

정이병, 코를 틀어쥔 채 걸레를 잡고 바닥에 흥건한 석유를 닦아낸다.
그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노수사관.
복도 끝에 윤하사와 수색대 소대장이 기다리고 있다.

14. G.P 내무반 (천재) - 밤

불이 꺼진 킁킁한 내무반,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진다.
침침한 불빛, 형광등 하나가 고장이 났는지 켜졌다 꺼졌다 반복한다.
처참했던 살육의 현장을 보여주듯 뭉개진 케익은 피로 물들어 있고, 사체들이
치워진 바닥에는 핏자국으로 얼룩진 허연 데드라인만 남아있다.

윤하사

무슨 파티를 했나 본데요?

가만히 둘러보던 노수사관, 아직 핏물이 흥건한 침상 밑에 신경이 쓰인다.
옆에 텅구는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쪽 훑으면 뒵가가 걸린다.
물컹거리는 핏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노수사관.
들어 올리면 핏덩이가 엉겨 붙은 권총이다.
윤하사가 지퍼 백을 벌이자 그 안에 넣는다. 잇달아 피 묻은 디카도 담긴다.
손전등으로 관물대를 비추는 노수사관.
나란히 붙어있는 소대원들의 관물대, 각각의 관물대마다 조그만 사진 액자가
하나씩 걸려있다. 웃고 있는 사진 속의 병사들, 혹은 애인들...
손전등으로 하나씩 비추며 가다 해맑게 웃는 젊은 여성의 액자에서 멈춘다.
관물을 끄집어내는 노수사관.
훈련소에서 지급된 조그만 백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낸다.
그런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윤하사와 수색대 소대장.
노수사관, 쏟아진 내용물 속에서 사진을 골라낸다.
폴라로이드 사진과 비교를 하다가 손전등으로 이름을 확인한다.

노수사관

(혼잣말로) 반갑다, 강진원 상병...

윤하사

찾았군요!

노수사관

개인별로 모든 관물을 체크해서 편지... 메모... 사진...
카메라... 일기장... 정보가 될 만 한 건 몽땅 수거해서
주기표를 달도록.

15. G.P 외곽 - 밤

퍼붓는 빗줄기 사이로 플래시 불빛이 원형 철조망을 훑는다.
철책 위로 판초우의를 번들거리며 나타나는 외곽 수색대원들.

최군건병

(수신호하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선군건병

여기도 깨끗합니다.

보고 있던 선임하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16. G.P 복도 - 밤

미로 같은 G.P 복도를 돌아다니는 노수사관. 그 뒤를 윤하사가 따른다.

윤하사

(고개를 저으며) 미쳤군, 미쳤어. 무슨 원수가 저서...
(종이에 그려진 G.P 내부도에 X표시를 하며) 이쪽에
있던 복도는 통째로 막아버린 거 같은데요.

노수사관

구조가 복잡하군.. (무심한 표정으로 둘러본다.)

껌벽거리는 형광등, 기다란 복도 너머 괴괴한 적막이 감돈다.

17. G.P 탄약고 - 밤

탄약고 안으로 들어서면 노수사관.

껌벽대던 형광등이 나가더니 갑자기 캄캄해진다.

허리에서 플래시를 꺼내려고 부스럭대는데

탁,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불빛이 노수사관 쪽으로 비친다.

돌아보면, 수색대 소대장이 플래시를 비추며 서 있다.

노수사관, 플래시로 뜯겨져 나간 탄약고 자물쇠를 찬찬히 살핀다.

수색대 소대장

(침을 튀기며 연성을 높이는) 강상병인가 하는 놈이
말예요... 완전 싸이코예요. 제대로 군기만 잡았으면
딴 생각 못합니다. 군대생활이라는 게 빠르게 돌리지
않으면 딴 생각이나 하게 되죠.

노수사관, 쳐다보면 짙컴해서는 입을 다무는 수색대 소대장.

플래시로 무기고 안을 비추는 노수사관. 포커페이스다.

광원 안으로, 방안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쌓아 올려진 소총 거치대며 위장포가
덮인 채로 옮겨진 K-6 등등이 들어온다.

18. G.P 화장실 -> G.P 복도-> G.P 화장실 - 밤

깜박깜박, 형광등 불빛이 들어온다.

마침 변기 칸에서 튀어나오는 윤하사. 형광등을 노려보며 못마땅한 듯 혀를 찬다.

왠지 뭔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찝찝한 기분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

피 묻은 손자국이 벽에 심란하게 찍혀져 있다.

못 볼 거라도 본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윤하사. 총총히 화장실 밖으로 나간다.

모퉁이를 돌아 한참 걷는데 눈앞에 또 화장실이 나온다.

피 묻은 손자국이 찍혀있던 화장실! 아까 그 곳이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윤하사.

19. 앰블런스 앞 (G.P 선병장) - 밤

MP3 리시버를 쫓은 채 앰블런스 선탑자 석에 앉아있는 군의관.

수색대소대장

(수사관을 쳐다보며) 비다뇨? 그럼 시체수가
모자라다는 겁니까?

앰블런스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수색소대장과 노수사관,

군의관

(책을 보는지 시선은 자기 무릎 쪽을 향한 채)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시신은 19구가 맞는데요.

수색대 소대장

그럼?

보고 있던 클립보드를 내리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부족합니다... 506 인원은 21명입니다.

군의원

우리 쪽 착오는 아닐 거요...

노수사관

(군의관을 쳐다보며)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겠습니까?

군의원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이 빛속에?

노수사관

예.

군의원

사체가 많이 훼손될 텐데...

노수사관

상관없습니다...

군의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것 보쇼, 수사관님...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소... 저 처나 어떻게
... 살려볼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완고한 노수사관의
표정에 스스로 포기하며) 들었지 애들아?

차에서 내리는 의무병들,
리시버를 뽑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군의원.

앰블런스 문이 열리고
의무병, 시체를 짊 지퍼 백들을 끄집어 내리기 시작한다.

환하게 켜진 하이 빔 안으로 쏟아 내리는 빗줄기.
땅바닥에 떨어진 핏물이 빗물에 번진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시신을 확인하는 군의관과 의무병.

<시간 경과>

의무병, 노수사관에게 보고를 한다.

양의무병

19명, 이상 없습니다...

군의관, 라텍스 고무장갑을 벗고 손세척제인 듯한 로션으로 손을 닦으며

군의관

이제 출발해도 되겠소?

손을 비비며 뻘뻘 쳐다보는 군의관.
고개를 끄덕이는 노수사관.

군의관이 타고 있는 앰블린스에 시동이 걸린다.
기다랗게 꼬리를 문 차량들의 행렬이 빗속을 뚫고 통문을 빠져 나간다.
그 모습을 쳐다보는 노수사관과 수색대 소대장.
소대장, 힐끔힐끔 노수사관의 눈치를 본다.

노수사관

방중위님!

수색대 소대장

(무얼 말하려는지 알겠다는 듯)

예... 애들 데리고 한 번 찾아보죠.

20. 몽타쥬 - 밤

- 별걱, 창고 문이 열리면서 역광으로 불빛을 받으며 들어서는 대원들.
아무 것도 없자 창고 문 앞에 X자 표시를 한다.
- 천장 통풍구를 떼어내는 수색대원, 안으로 플래시를 비추지만 아무 것도 없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하면 카메라도 같이 붙업 한다.
- 녹이 슬어가는 계단 밑으로 쏟아지는 플래시 불빛.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흠칫 놀라는 대원들.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플래시를 들고 일어서는 노수사관의 얼굴이 나타난다.

멋쩍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자리를 뜨는 대원들.

- 초소 근무병의 시선으로 보면, 연병장 쪽으로 뛰어가는 대원들이 보인다.

21. G.P 연병장 - 밤

쿵쿵, 개 짖는 소리!

개 줄을 잡고 병커 쪽으로 억지로 끄는 군견병들, 진땀을 흘린다.

심하게 짖어대며 저항하는 군견들.

최군견병

니들 왜 그래!... 뭐가 무서운 거야, 응?

22. G.P 복도 (G.P내부) - 밤

어두침침한 복도 한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윤하사.

당혹스런 표정으로 아까부터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병커 벽 부서진 틈 사이로 어두운 공간.

ins (시점 샷) 어두운 공간 안에서 윤하사를 쳐다보는 누군가의 시선.

윤하사

이상해. 뭔가 이상해... (신경이 쓰이는지 찜찜한

기색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나저나...여기가...

G.P내부도를 이리저리 둘러보던 윤하사. 한숨을 푹푹 내쉬다 결심한 듯

GP내부도를 차곡차곡 접어 넣으며

윤하사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계장님, 수사계장님!

23. G.P장실 - 밤

선임하사

원래 G.P장실인데... 우선 임시로 이곳을 쓰십시오.

선임하사가 문을 열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박스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박스를 들고 옮겨다 놓는 수색대원들로 북적이는 배경으로, 고급스러운 장식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CD며 세련된 디자인의 CD플레이어, GP장의 취향이 묻어난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는 노수사관.

24. G.P 복도 - 밤

윤하사

계장님! 수사계장님!

선임하사 (E.)

누구야!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윤하사

아, 선임하사님... 여기 GP구조가 이상한데요?
군데군데... 내부도하고 아예 다른 곳도 있구요.

선임하사 (E.)

지어진지 오래돼서 그럴 거야.

윤하사, 헛갈리는 듯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보고 놀란다.

윤하사

뭐야, 이거... 미로 찾기 게임도 아니고...

심각하게 얼굴이 굳는 윤하사.

피 묻은 손자국이 찍힌 화장실이 또 나타난 것이다.

25. G.P 입구 - 밤

군견들을 G.P 안으로 밀어 넣느라 진땀을 흘리는 군견병들.

미친 듯이 짚어대는 군견들 소리로 G.P 안에 찌렁찌렁 울려댄다.

선군견병 (E.)

어서 들어가, 어서!

26. G.P장실 - 밤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G.P 안까지 새어 들어온다.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박스에 담겨진 채 수색대원들에 의해 방안으로 옮겨진다.
곽상병, 입이 찢어져라 하품하는데
옆에 있던 안상병, 뭔가에 놀란 듯 곽상병을 툭 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박스 더미 너머에 노수사관이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조용히 걸어 나가는 곽상병, 안상병.
노수사관, 돋보기를 코에 건 채 그 자세 그대로 병사수첩 읽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곽상병 (NA)

오늘따라 유난히 개가 짖어댄다... 발정이라도 난 걸까?

27. G.P 내무반 (과거) - 밤

침상에 누워있는 부대원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정병장

저 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밤새도록 짖어대네.
누가 가서 조용히 좀 시켜!

곽상병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발정난 거 아닐까요?

마침 세수를 했는지 얼굴을 닦으며 들어오던 서이병을 본 고참.

정병장

얌마 신병, 니가 좀 나가봐. 저 똥개 새끼 왜 저러냐?

28. G.P 연병장 한 구석 (과거) - 밤

눈을 비비며 연병장으로 걸어 나가는 서이병.

서이병

똥개야 너까지 날 신병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왜 조용히 안 해!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개밥을 들고 개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서이병

(흔잣말로) 누구지.... 마병장님인가?

미친 듯이 짚어대던 개는 마병장이 다가가자 공격하며 날뛰는 것이 아닌가!
어둠 속에 마병장과 개가 뒤엉킨 채 땅바닥에 뒹구는 것이 보인다.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치는 서이병.
허둥지둥 소각장 근처에서 쓸 만 한 각목을 찾아들고 다시 뛰어온다.
괴괴한 정적.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는 서이병.
바닥에는 흥건한 피.
놀라서 뒷걸음질치는데 뭔가 밟힌다.
돌아보면, 머리가 잘려나간 개의 사체가 뒹굴고 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
온몸에 피를 묻힌 채, 개의 대가리를 들고 있는 마병장!

서이병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으...헉... 으아아악!

29. G.P장실 (현재) - 밤

찢겨진 페이지. 분대원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지만 모두 찢겨져 나갔다.
쿵쿵쿵! G.P 안에 찌렁찌렁 개 짚는 소리가 울린다.
신경이 쓰이는지 돋보기를 벗어드는 노수사관.

윤하사 (E.)
에이취~!

30. G.P 복도 환견 - 밤

콧물을 훔치는 윤하사, GP내부도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다. 길이 없는 곳에
X를 그려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 연신 가웃거린다.

윤하사
째째해, 뭔가 빠졌어. 뭔가 빠졌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어? (개 짚는 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이다.)

31. G.P 입구 - 밤

아악! 물어뜯긴 손을 싸쥐고 주저앉은 선군견병.
멀리 빛속을 뚫고 달아나는 군견들이 보인다.

최군건병

저것들까지 왜 저러는 거야!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뛰어가며) 야, 잡어! 잡으라구... 새까!

통문보초병에게 고향을 질러대는 최군건병.
초소 위에 서 있는 노수사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쏟아지는 빗줄기, 빗물이 초소 총안구 앞으로 떨어진다.

32. G.P장실 - 밤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G.P내부도.
사체들이 발견된 지점들을 꼼꼼하게 화이트보드 위에 표기하는 윤하사.
연신 이마의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낸다.

윤하사

(GP장실을 둘러보며) 높은 사람 자식이라 그런지...
틀리긴 틀리네요... 에취...

자료를 보던 노수사관, 윤하사를 쳐다본다.

노수사관

(다시 자료로 눈을 돌리며) 좀 쉬어.

윤하사

괜찮습니다. (땀, 휴지에 코를 푼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신은 크게 세 종류예요. 여기 있는 사체들은 적어도
죽은 지 이틀, 여긴 하루 이상으로 보입니다...
탄약고를 뜯은 것도 그 농일까요?

노수사관

그 전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무기를 통제한 거 같아.
내무반에 있어야 할 개인화기에서 대공초소 K-6까지 모
두 탄약고 안에 있었어.

노수사관이 지적인 말을 짹짹 기록하는 윤하사.

윤하사

그런데 말입니다. (코를 훔쩍이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수사관, 윤하사를 뺀히 쳐다본다.

윤하사

(망설이다 겨우 입을 떼며)

여기 G.P말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쥐가 없어요.

노수사관

쥐가 없다니?

윤하사

이런 오래된 벙커는 쥐가 득실득실 하거든요. 거기다

시체가 이렇게 들끓었는데 쥐가 난리법석을 치고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잖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갑자기 어색한 정적이 감돈다.

이때,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가 G.P 안에 울려 퍼진다. 호르륵!

33. G.P 발전기실 - 밤

일사분란하게 겨뉘진 총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불빛에 역광으로 보인다.

보일러실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는 병사. 패닉상태다.

수색조를 밀치면서 들어오는 노수사관.

조심스럽게 병사 쪽으로 다가간다.

마치 자신을 죽이길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질러대는 병사.

손에 나이프를 들고 휘둘러댄다.

노수사관

모두 비켜! (담요를 집어던진다.)

미친 듯이 칼을 휘젓는 병사의 머리 위로 덮이는 담요.

병사의 손에서 나이프를 떨어뜨리는 노수사관.

벌벌 떨고 있는 병사의 눈을 담요로 씌워 가리고는 붙잡는다.

34. G.P 식당 - 밤

담요를 덮은 채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병사. 얼굴에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다.

그 옆에는 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지키고 있다.

노수사관, 물 잔을 병사의 앞에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는다.

노수사관

갑자기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갈 거야. 애기 좀 하고
더 먹도록 하자구. 군번줄을 여러 개 매고 있던데...
어느 게 네 꺼지? 자네 이름이 뭔가?

갑자기 먹던 동작을 멈추는 병사.

윤하사

이 자식이... 관등성명을 대!

병사, 테이블을 부술 듯 수저를 내려놓으며 눈을 천천히 치켜뜬다.

병사 (이하 GP장)

나... 506 G.P장, 유종위다...

소대장이란 말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의 표정.
짧은 정적이 흐른다.

GP장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나?

노수사관

(수색소대장을 쳐다보며) 자리 좀 비켜 주겠소?

선임하사

이 자식들이... 뭇들 해, 임마... 할 일이 태산인데...

눈치 빠르게 선임하사가 대원들을 재빨리 끌고 나가고
수색소대장도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시간의 경과>

낮게 깔려 빠지지 않는 담배 연기.
갓이 달린 전등 아래 앉아있는 GP장, 얼굴의 위장크림을 닦아내고 있다.
맞은편에는 노수사관과 윤하사가 앉아있고, 앉아있는 식탁 한 가운데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가고 있다.

GP장

그럼 모두?

노수사관

(고개를 끄덕이며) 강상병, 한 명만 빼고 모두...

머리를 감싸 쥐며 고개를 숙이는 GP장.

윤하사

(심문하듯)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GP장

좋은 질문이군... 윤하사라 그랬나?

하지만 본대에 먼저 보고 하는 것이 GP장의 임무다.

노수사관

GP장으로서의 심정이 어떤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GP장

말했잖소... 본대에 복귀한 뒤 얘기하겠다고...

노수사관

유중위님... 이럴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잘 알 텐데요...

GP장

군인은 군인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요... 군인답게...

그리고 노원사... 당신은 군인이지, 경찰이 아니오...

본대로 복귀할 수 있게 차편을 내주세요.

Ins. G.P 천경

35. G.P 상황실 - 밤

수색 소대장과 선임하사, 그리고 상황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들의 표정 위로

전화 (E.)

잔말 말고 당장 복귀 시켜.

노수사관
아직 조사가...

전화 (E.)
(말을 끊으며) 조사고 지랄이고 당장 보내라구... 당장...

노수사관
이 사건은 내 담당입니다.

전화 (E.)
왜 이리 말이 많아! 보내라면 보내....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색 소대장.

노수사관
어쨌든 내일 공 육시까지 는 제가 책임잡니다.

전화 (E.)
이 새끼 이거... 미쳤구만... 이 개새끼야... 월 믿고
까부는 거야... 너 정말 옷 벗구 싶어 그래!

노수사관
참모님 옷이나 잘 간수하십시오.

전화 (E.)
야... 이 개새...

노수사관, 전화기를 내팽개치듯이 내려놓는다.

36. G.P 식당 - 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수사관.
GP장은 없고 윤하사와 GP장을 감시하던 소대원 하나만 덜렁 있다.

노수사관
어디 갔어? GP장...

막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던 윤하사.

윤하사

예? 계장님하고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정이병

(윤하사와 노수사관을 번갈아 쳐다보며)
저... 저기... 전투복 갈아입으신다고... GP장실에...

인상을 구기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뛰어나간다.)

37. GP 복도 - 밤

복도를 뛰어가는 노수사관, 윤하사가 뒤따른다.

38. GP장실 - 밤

GP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등을 돌린 채 뭔가를 하고 있는 GP장, 군복을 갖춰 입은 상태이다.

책상 위의 자료들이 흩어져 있다.

노수사관이 GP장을 잡아 돌리면, 다이어리를 찢어 입으로 쭈셔 넣는 GP장.

노수사관

뭐하는 거요?

노수사관, 다이어리를 뺏고 GP장의 멍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다.

노수사관

뭐하는 거야? 뺏어... 뺏으라구...

목을 조르며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는 노수사관.

지지 않고 노수사관을 노려보며 꿀꺽꿀꺽 삼키는 GP장.

노수사관

뺏어... 뭘 숨기려는 거야... 말해... 말하라구.

목을 조르는 노수사관, GP장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윤하사
(뜯어말리며) 계장님... 계장님...

GP장을 내팽개치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수갑 채워!

윤하사
예 ?

노수사관
수갑 채우라고... 임마...

노수사관을 노려보는 GP장.

GP장
당신... 실수 하는 거야...

노수사관
실수는 이미 했어...

39. GP 창고 - 밤

노수사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GP장을 거칠게 밀어 넣는다.

노수사관
스무 명이나 죽었어... 스무 명... 생때같은 부하들이
스무 명 씩이나 죽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감정을 추스르며) 마지막으로 묻겠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기서...

대답이 없는 GP장.

노수사관, 창고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GP장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GP장
말해도 못 믿을 거요...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뭐어?

GP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소. 상상도 못할 아주 끔찍한 일이...

다가가 멍살을 잡듯 옷깃을 부여잡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무기는? 소대원들의 무기는 왜 통제한 거요?
하극상이라도 벌어진 건가?

노수사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GP장.

GP장
(두려운 듯 치를 떨며) 그걸 알아내면...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거요...

GP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노수사관. 옷깃을 움켜잡은 손을 놓는다.

40. G.P장실 - 밤

윤하사
부르셨습니까?

노수사관
(키를 던져주며) 지프를... 내줘라.

윤하사
예?

41. G.P 연병장 - 밤

수갑을 찬 채 지프에 올라타는 GP장.
선임하사가 선답을 했다.
출발하는 지프.

GP장, 성에 낀 차창을 손으로 문질러 수사관이 서 있는 2층 초소를 바라본다.
통문 밖으로 나가는 지프를 쳐다보는 노수사관.
고가초소의 태극기와 UN기가 비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거리고 있다.

42. G.P장실 - 밤

윤하사

한 명은 혼수상태고 한 명은 진술 거부에...
생존자가 있으면 뭘 해... 도움이 안 되는데...
(흔жат말 하며 어질러진 서류들을 정리한다.)

노수사관

디카는 아직 인가?

윤하사

네, 여기 디카 좀 만질 줄 아는 애가 있어서...
복원해보라고는 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보다...보실 게 있습니다... (카메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전에 부식창고 쌀통 옆에 떨어져 있는 걸
찾았데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시선이 꽂히는 노수사관.

43. ENG 카메라 화면 (G.P 부식창고) - 밤

소대원들이 노는 화면에서 갑자기 노이즈 되며
강상병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난다.

강상병

나는 지금부터 우리 부대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내 손으로 끝을 내야만 한다...

장병장 (E.)

이봐, 거기서 뭐해? 강상병.

갑자기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며 푹 끊기더니 지지직거리기 시작한다.

44. G.P장실 - 밤

윤하사

여기서부터 테이프가 씹힌 거 같아요.

노수사관

취봐... 이거야? (사용법 물으며 리모컨을 건네받는다.)

윤하사

저 눈 좀 보세요. 피에 굶주려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습니까... 잔인한 놈이에요. 이런 걸 미리 찍어 놓을 정도라면 과시욕구도 있는 거 같고...

수사관이 쳐다보면 입을 다무는 윤하사.

묵묵히 비디오카메라만 재생시키는 노수사관.

화면 속의 강상병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화면 위로 내레이션 깔린다.)

박상병 (NA)

밤새도록 뒤척거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45. G.P 2층 옥상(과거) - 밤

심란한 얼굴로 옥상에 걸터앉아있는 박상병, 담배를 빼어 물다 도로 집어넣는다.

강상병 (E.)

왜?... 잠이 안 와?

박상병, 쳐다보면 2층 옥상 한쪽에서 오줌을 누던 강상병이다.

강상병

어제 집에서 편지 온 거 같드만... 뭔 일 있냐?

대답 대신 못 들은 척 기지개를 켜는 박상병.

강상병,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다가와 옆에 걸터앉는다.

강상병

(북한 GP를 쳐다보다) 어라, 오늘은 아예 불을 꺼놨네. 야간 근무도 안 서고 자는 거 아냐? 짜식들, 좇겠다.

박상병

철딱서니 하고는, 코앞에 북한 애들이 있는데
긴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강상병

어차피 재네나 우리나라 ... 똑~같은 토끼 신센데 월.
(손 베개를 하고는 벌러덩 눕는다.)

박상병

토끼라니?

강상병

예전에는 말야... 잠수함 탈 때 토끼를 갖구 탕대거든.

박상병

왜?

강상병

토끼란 놈은 말야.. 산소에 아주 민감하다거든. 우리 인
간들이 잘 못 느끼는 산소농도의 변화에 금새 반응한다
는 거야... 그래서 잠수함 속의 토끼가 죽으면... ‘아! 지
금 산소가 부족하구나’하고 물 밖으로 떠오른다는 거지.

박상병

(다소 찡찡한 표정으로) 그럼 토끼는 죽는 게 임무야?

강상병

살아남는 게 임무야. 그래야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짙은 눈웃음을 치며) 우리...처럼.

박상병

(역시 따라 누우며) 살아남는 임무? 갖다 붙이긴. 이런
데 처박혀서 허송세월 보내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란히 누운 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을 보는 두 사람.

박상병

잘들 지내고 있겠지... (눈빛이 촉촉해진다.)

강상병

(흠뻑 쳐다보다 잔뜩 장난기 서린 표정으로 와락 덤벼들며 헤드 락을 건다.) 짜식, 엄마 보고 싶냐!

이때, G.P 입구에서 취사병이 강상병을 부른다.

취사병

야, 꼴통! 거기서 뭐해. 아침 해야지..

46. G.P 취사장 (과거) - 새벽

주방 도마 위에 가지런히 썰려나오는 야채들이 거대한 국솥으로 들어간다. 땀을 닦는 취사병.

취사병

(옆을 보며) 쫓쫓... 꿀깍을 떨어요. 꿀깍을...
까라는 양파는 안 까고...

옆자리에 물안경을 쓴 강상병, 대야에 한 가득 양파를 까고 있다.

47. 앰블런스 안 (현재, G.O.P로 가는 보급로) - 밤

앰블런스 침상에 누워있던 강상병, 링거주사를 뽑고 살그머니 일어선다. 졸고 있는 군의관을 향해 시퍼렇게 날이 선 가위를 치켜드는 순간!

군의관

헉! (잠에서 깨어난다.)

살인마(이하 강상병)는 여전히 코마상태에 빠진 그 모습 그대로 누워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군의관.

바닥에 떨어져있는 MP3를 줍다가 뒤늦게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닫는다.

운전석 쪽을 보면 비어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군의관.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모든 차량들이 멈춰 서있고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변운전병

(뛰어오며) 군의관님, 큰일 났습니다!
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선두차량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군의관.
완전히 쓸러나가 계곡처럼 패인 비포장도로 위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

변운전병

(놀란 표정으로) 어, 저건 뭐지?

멀리 위협적으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내려오는 지프가 보인다.
잠시 군의관의 얼굴에 불길한 표정이 스친다.

48. G.P 2층 옥상 K-6진지 (과거) - 낮

낮, 신병 들(서이병,조이병)과 함께 2층 옥상으로 올라온 강상병.
초소에서 바라보는 주위 풍경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상병

멋있지? 탁 트인 게... 저기가 (가리키며) 모란봉G.P,
북한 애들 G.P야... 직선거리로 300m, 소리치면 들려...
소리쳐봐... 짜식 쫄기는...
야... 어이 (손을 흔든다.) 봐... 손 흔들지, 재두?

신병들

(바짝 군기가 들어) 예, 그랬습다!

고가초소에서 고참이 내려다본다.

주병장

뭐야?

강상병

총성! 신병들 교육 좀 시키려구요...
(거치대에 있는 K-6를 가리키며) 애들아... 이게 K6야,
K6...재들 G.P에 딱 고정되어있지... (K-6방아쇠에
손을 넣고) 당기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발사되는 K-6.

놀란 강상병의 얼굴, 놀란 신병들의 얼굴.
얼굴이 새파래져서 쳐다보는 고가초소의 고참.

주병장

뭐야... 뭔 소리아...!

강상병

저기... 그게 아니구...

주병장

(불으락푸르락하며) 너... 이 개새끼...

갑자기 강상병이 신병 들을 썬안고 바닥으로 퐁군다.

그와 동시에 “승승승!”

북쪽 G.P에서 총알이 날아와 초소 벽에 맞으며 콘크리트 조각들이 튄다.

49. G.P 선병장 (과거) - 낮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분대원들, 부GP장이 씩씩거리고 있다.

GP장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GP장

이 정도로 끝냅시다...

부GP장

예...

나가는 GP장.

부GP장

기상!

분대원들 일어선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병사들.

부GP장

넌 말구 새끼...

기겁을 하고 다시 원산폭격을 하는 강상병.

부GP장

어휴... 저 꼴통 새끼... 야 꼴통!

강상병

예... 상병 강진원!

부GP장

너... GP장님 아니었으면 영창이야 영창, 새까 ...
년 앞으로 근무 열외다... 근무 서지 말고 하루 종일
사역만 해... 똥 푸고... 뺩끼칠 하고... 양파 까고...
하여간 사역이란 사역은 니가 다해, 알았어?

강상병

예... 알겠습니다!

50. GP장실 (현재) - 밤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쌓아놓고 있는 노수사관과 윤하사.

윤하사

(수첩을 접으며) 사고뭉치 같기는 해도... 그다지 나쁜
친구는 아닌 거 같은데 말입니다... 강상병에 대한 진술
들은 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근무일지를 비롯해서...
지난 며칠 동안의 기록들마다 다 찢겨져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그 자식이 죄 뜯어놓는 걸까요?

노수사관

더 잘 됐는지도 몰라. 웬지... 별로 믿음이 안 갔는데...

윤하사

하긴... 자기 다이어리까지 없애 버리려고 한 걸 보면...
여기 뭔가 있긴 있겠네요.

노수사관, GP장의 다이어리를 건네받고는 펼쳐든다.

GP장 (NA)

자신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된 걸까...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이제 와서 얘길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51. G.P장실 (과거) - 낮

GP장

단순 사고가 아니라니, 그럼 누가 범인이라는 거요?

부GP장

애들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부상병도 후송 조치 시켜야 하지만, 마병장조도 격리조치 했으면 합니다.

GP장,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보면 부GP장, 시선을 피한다.

GP장

(선임하사를 붙잡고) 뭐니까? 제대로 얘기해요!

부GP장

개네들... 사단장님 방문 준비한다고 제초작업 나갔다가 실종 됐잖습니까...

52. G.P 2층 옥상 (과거) - 낮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마병장 일행.

옥상 위에서 건조한 식기들을 거두고 있던 강상병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강상병

(쳐다보며) 아, 저게 무슨 사고생이야... 저번에는 험하다고 해서 나무까지 뽑아다 심었는데 이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니...젠장...

취사병

까라면 까고 뽑으라면 뽑는 거야 새끼야...
(거둔 식기들을 강상병의 팔에 툭, 한 아름 안겨준다.)

강상병

(짐짓 불쌍한 표정으로 코믹하게 취사병을 흘끔거리며)
인간적으로 우리 사단장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냐.

GP장 (NA)

“그날... 제초 작업을 나갔던 마병장조가 실종이

되었다... 그 때문에 G.P가 발칵 뒤집어졌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했다...”

53. G.P 연병장 (과거) - 아침

이른 새벽, 얼굴에 검댕까지 칠한, 완전군장의 소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다. 그 가운데 강상병도 섞여있다. GP장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지역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부대원들이 웅성댄다. 먼동이 트는 하늘을 뒤로 한 채 연병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세 사람의 실루엣. 마병장조다. 들은 군화를 잃어버린 듯 맨발이고 옷이 흙투성이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동료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마병장 일행. 부GP장이 마병장 일행을 끌어안는다.

54. G.P 내무반 (과거) - 낮

잠만 자는 마병장 일행. 의무병이 조용히 링거 병을 바꿔주고는 옆에서 등을 쳐놓고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넘기던 의무병, 마병장 일행 쪽을 살피는데 목 근처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나왔다. 만지려고 하는 의무병, 깜짝 놀란다. 잠을 자던 마병장이 멀쩡한 얼굴로 반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황급히 눈길을 돌리며 돌아서는 의무병, 다시 쳐다보면 곧히 자고 있는 마병장. (화면 위로 흐르는 대사)

GP장 (NA)

“그러니까... 선임하사 얘기는, 마병장 조가 돌아온 담부터 G.P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건가?”

부GP장 (NA)

“저도 처음엔... 얘기 듣고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말들이 자꾸 끊임없이 돌아옵니다...”

55. G.P 연병장 (과거) - 낮

죽구를 하고 있는 소대원들. 박상병이 서브를 넣을 차례다.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공이 오지 않는다. 돌아보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박상병.

부GP장를 비롯해 모두들 놀란 얼굴로 쳐다본다.

56. G.P 고가 초소 (과거) - 밤

늦은 밤, 마병장과 근무를 같이 서게 된 김일병.

김일병

(눈치를 보며) 괜찮으십니까, 마병장님?.. 그냥 내무반
들어가서 편히 쉬십시오. 소대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대꾸도 없이 마병장은 초소 구석 상자 위에 앉아있다.

김일병

(바짝 군기가 든 채 쫓아서) 마병장님!

취죽은 듯 조용한 마병장, 어둠 속에 묻혀 잠이 든 거 같다.

눈치를 보던 김일병, 천천히 돌아보면

뭔가 번들거리는 점액질이 마병장의 손에 든 총 위로 푹푹 떨어지는 게 아닌가.

플래시를 꺼내 점액질이 떨어지는 곳을 향해 위로 비춰보는데...

마병장의 벌어진 입에서 줄줄 흘러내렸던 것이다.

게다가 마병장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회반덕거리는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 뻔히 김일병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총을 부여잡는 김일병.

마병장, 침을 질질 흘리며 천천히 김일병에게 다가간다.

김일병 (E.)

으.... 으아아악!

늦은 밤,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

총을 집어 들고 초소 앞으로 몰려드는 소대원들. 자다가 뛰어나왔는지

활동복에 맨발인 사람도 보인다.

머리가 꺾인 채 혈떡거리고 있는 김일병.

의무병이 응급치료를 하지만 증래다.

강상병

(놀란 얼굴로 가리키며) 저기, 저기 보세요!

초소 한 구석에 주저앉아있는 마병장, 미친 듯이 벽에 머리를 박고 있다.

쿵쿵쿵, 깨진 뒤통수에서 흘러내린 피로 젖어있는 군복.
고통스러운 듯 자해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마병장의 모습에 일동, 말문을 잃는다.

57. G.P 의무실 (과거) - 낮

침상에 누워있는 김일병을 내려다보는 GP장.

GP장

마병장이 널 공격했나? 괜찮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김일병

모르겠어요...

GP장

모르다니...?

김일병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GP장, 당혹을 금치 못한다.

58. G.P장실 (과거) - 밤

플이 죽은 채 앉아있는 부GP장. 옆에 의무병도 서 있다.

GP장

(못마땅하게 쳐다보다) 개들, 일단 격리시킵시다.

GP장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의무병.

이때, 상황병이 뛰어 들어온다.

도상황병

GP장님!... 김일병이, 김일병이... (말을 못하면)

부GP장

김일병이 뭘 어쨌단 얘기야, 새끼야!

도상황병

김일병이 죽었습니다.

경악하는 GP장, 얼굴이 구겨진다. 그 위로 내레이션이 흐른다.

GP장 (NA)

온몸에 구타로 인한 멍자국이... 상처자국이 분명한데도
다친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다...

59. G.P 발전기실 (과거) - 밤

하얀 시트에 덮여있는 시체를 살펴보는 의무병.

의무병을 돕던 부대원들 역시 말문을 잃은 채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60. G.P 내무반 (과거) - 밤

초상집 같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각자 제 할 일을 하는 부대원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꿎은 가래침만 카악, 카악 내뿜는 이,
근화 벗을 생각도 않고 멍하니 뉘를 놓고 있는 이 등등.

누군가 강상병의 옆구리를 툭툭, 친다.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누군가의 손.

강상병, 조심스럽게 균장을 챙기며 근무준비를 한다.

분대장(정병장)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강상병.

강상병

(분대장에게 보고하는) 저 근무 갔다오...

분대장(정병장), '어서 꺼지라'는 듯 손사래를 친다.

조용히 거수경례 붙이고 나가는 강상병.

61. G.P 상황실 앞 복도 (과거) - 밤

본대와 교신하고 있는 GP장.

GP장

506 G.P, 총원 21, 현재원 21, 사고무! 부대 이상
없습니다. 예! 계속 근무 하겠습니다. 충성!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GP장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 강상병이다.

62. G.P 내무반 (과거) - 밤

붉은 취침 미등이 켜져 있는 내무반.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소대원들. 쉬이 잠이 오지 않는 듯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때, 뚜벅뚜벅... 복도 저편에서 저는 듯 발을 끄는 군화굽 소리.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내무반.
일제히 자는 척 눈을 감는다.
끼이익, 문이 열리며 내무반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기척.
문 바로 옆에 누운 강상병, 살그머니 눈을 뜬다.
복도 형광등 불빛에 비친 GP장의 그로테스크한 얼굴이 보인다.
자기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오는 강상병.
그 소리를 들었는지 GP장이 강상병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찔끔하는 강상병.
가만히 부대원들을 둘러보던 GP장. 잠자코 문을 열고 나간다.
약속이나 한 듯이 눈을 뜨는 소대원들, 불안한 표정이다.

63. G.P 내무반 (현재) - 밤

핏자국이 흥건한 내무반 안에 서 있는 노수사관과 윤하사.

윤하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수사관

여긴 GP야... 가장 가까운 G.O.P도 4킬로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부대 이상 없다고 보고하면...
누가 알겠어...

이때, 연병장 쪽이 소란스러워진다.

윤하사

바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계장님!

64. G.P 연병장 - 밤

빗속을 뚫고 G.P정문 안으로 후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3/4톤 앰블런스들의 행렬.
제일 먼저 도착한 앰블런스의 문이 열리며 군의관이 병커 쪽으로 뛰어온다.

수색소대장
무슨 일입니까!

군의원
폭우 때문에 길이 끊겼어요.

수색소대장
군병원으로 후송해야 하겠습니까?

군의원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사체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벙커 안에서 가장 서늘한 곳이 어디입니까?

윤하사
(의무병에게) 짐차 못 봤습니까?

군의원
곧 올 꺼야...

이때, 김의무병이 다급하게 소리친다.

김의무병
군의원님!

65. 앰블런스 (G.P 연병장) - 밤

침상에 누워있는 강상병, 심장 박동기가 정지되어있다.
손전등으로 눈을 살펴보는 군의원.

군의원
언제부터야?

김의무병
화장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윤하사와 달려오는 노수사관.
전기 충격기를 준비하는 군의관과 김의무병.
노수사관, 상황을 눈치 채고 윤하사에게 당부한다.

노수사관

아무도... 아무도 ... 접근하지 못하게 해...

윤하사

예... 알겠습니다.

앰블런스 문을 닫는 노수사관.

김의무병

(충전 파워를 보고 있다가) 레디...

군의원, 충격기로 강상병 가슴을 힘껏 누른다.

풀썩하고 들썩이는 강상병, 반응이 없다.

두 번, 세 번째 역시 반응이 없다.

강상병을 내려다보는 노수사관.

빛소리만 요란하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른 채 앰블런스 앞에 서 있는 윤하사.

66. 앰블런스(G.P 연병장) - 밤

앰블런스에 실려 있는 무전기로 박대령과 통화를 노수사관.

노수사관

이제... GP장만 남았습니다...

박대령 (E.)

더 큰 문제는... 그 유일한 생존자가 총장 아들이라는

거고 말야... 흠... 큰일이군...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

소설을 써댄다면... 사건이 자칫 산으로 갈 수도 있어...

말이 없는 노수사관.

박대령 (E.)

듣고 있나? 어쨌든 난 그 친구 죽은 건 모르는 걸로

하겠네... 거기서도 입단속 단단히 하라구...

수화기를 내려놓는 노수사관.

옆에 서 있는 앰블런스의 조수석엔 군의관이 앉아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군의관, 약간은 심각한 모습이다.

앰블런스 앞을 가로질러 병커로 걸어가는 노수사관.
그 모습을 쳐다보는 군의관.

67. G.P 식당 - 밤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형광등, 조도도 낮은데다 기분 나쁜 소리까지 내고 있다.
사체가 든 지퍼 백을 열어 사체를 확인하고 있는 노수사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군의관.

군의관
뭐하는 거요?

노수사관, 계속 사체의 총상자국을 확인하며 지퍼 백에 백묵으로 표시를 한다.

노수사관
조사를 좀 할 게 있어서요...

얼굴에 총상을 입은 사체의 뒷면을 보려고 사체를 뒤집으려 한다.

군의관
(눈살을 찌푸리며) 이것 봐요... 그 사체... 상태가
안 좋아 뇌수가 쏟아질 수도 있다구요...
(노수사관이 그래도 뒤집으려 하자) 못 말리겠군...
자, 이걸 끼시오...

군의관, 라텍스 장갑을 건네주고 자기도 낀다.

군의관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군의관이 살짝 머리 쪽을 들어준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손전등 불빛으로 탄흔을 살펴보는데 철퍼덕 뇌수가 쏟아지면서
노수사관 얼굴에 뇌수가 튄다.

군의관
어때... 이제 만족합니까?

휴지를 건네주는 군의관.

노수사관

고맙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권총 같은데...

군의원

(라텍스 장갑을 벗으며) 그건 맥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노수사관, 호주머니에서 작은 지퍼 백을 꺼낸다.

지퍼백 안에는 피 묻은 권총이 들어있다.

군의원

(복도로 나가면서) 아무튼... 사체가 훼손된 걸 알면 유족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요.

노수사관, 탄창을 빼보면 다섯 발이 빈다.

인기척 소리에 돌아보면 선임하사다.

68. G.P 복도 - 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노수사관, 선임하사가 뒤따르며 계속 지껄인다.

선임하사

정말입니다... 저는 손끝 하나 안 댔어요...

운전병한테 물어보십시오... 길이 끊겨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깐 그때부터 발악을 하고 다시방에 이마를

찡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손목을 물어뜯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병장으로 나오는 노수사관과 선임하사.

69. G.P 연병장 - 밤

비를 맞으며 지프로 다가가는 노수사관.

조수석 유리창에 피가 묻어 있다.

GP장,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다.

차문을 여는 노수사관.

노수사관

(가만히 쳐다보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GP장

여기 있기 싫어... 나갈 거야... 나가게 해줘... 제발...

초소 위에서 쳐다보는 수색대원들.

노수사관

(초소 쪽의 대원들을 향해) 다들 위치로 돌아가!
유중위, 당신은 장교요...

GP장

(공포에 질려) 다 필요 없어. 이봐, 노원사..
나 여기 있기 싫어. 나가게 해줘. 여기만 아니면 돼...

노수사관

(피 묻은 권총을 꺼내 대쉬 보드에 올려놓으며)
좋은 총을 가지고 계셨더군요. 아버지가 물려주셨나요?

GP장

(정신이 번쩍 든 얼굴로 총을 노려보다)... 어디서고
그 지긋지긋한... 유태식 장군 아들이란 딱지가 붙어
다녔지... 이런 걸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 같소?

노수사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수십 명의 늙은 부모들을 위해서요.

GP장, 여전히 총을 쳐다보고 있지만 어느새 눈빛은 누그러졌다.

70. G.P정문 - 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나타나는 판초의 입은 수색대원들.

최군건병

이봐, 교대시간이야!

정문 보초병(구일병), 부르는 소리에도 꿈쩍도 않고 서 있다.

최군건병

암마,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정문 보초병(구일병)에게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맥도 못 주고 폭 쓰러진다.

71. G.P 의무실 - 밤

열이 펄펄 끓는 구일병. 온몸이 불덩이다.
난감한 표정으로 진찰하던 군의관이 고개를 들어보면
복도에서 쿵쿵거리며 서 있는 몇 명의 수색대원들이 열린 문틈으로 보인다.
약장을 뒤지는 김의무병.

김의무병

군의관님! 감기약만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군의관

무슨 소리야, 여긴 G.P야. 그런 상비약들은
산처럼 쌓여 있다구!

약통이 텅텅 비어있다. 보관 사물함을 뒤지지만 역시 꺾데기만 남아있는 약통들.

군의관

(얼굴이 심각하게 어두워지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72. G.P장실 - 밤

담요를 덮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GP장과 노수사관.
이마에 밴드를 붙인 GP장, 다소 진정이 된 모습이다.
GP장의 수갑을 풀어주는 윤하사.

GP장

우리 소대원들도 피곤했을 거요... 펍하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줄줄이 순찰을 했으니까...
참... 좋은 애들이었는데...

윤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하려고 할 때
노수사관, 손을 꼭 잡아 제지를 시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노수사관, 담배를 권하며 불을 붙여준다.
천천히 입을 여는 GP장.

GP장

GP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상한 사고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했어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사람들... 마병장조를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73. G.P 창고 (과거) - 밤

마병장과 박상병, 최일병이 창고 안에 들어가면 문이 덜컥 잠긴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그는 부GP장과 GP장.

GP장 (NA)

...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74. G.P 화장실 (과거) - 낮

끼끌거리며 샤워기 앞에 서서 몸을 씻고 있는 소대원들.
샤워장 문 앞에 수건을 가져다놓는 신병(조이병).

조이병

수건 가져왔습니다... (두리번거리다)
고칠 때가 어딥니까?

취사병

거기 문 앞에...

잡싸게 문 옆으로 뛰어가는 조이병, 스패너를 꺼내들고는 열심히 조이다가
뭔가가 튀어나왔는지 요란하게 수도파이프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취사병

야, 좀 뽀뽀 문질러. (등을 미는 최일병에게 물을
끼얹고는 장난을 친다.)

최일병

에이, 이러지 마시지 말임다...

그 사이 점점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샤워기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하나 둘 터지며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여기저기서 펄쩍 뛰며 고함을 질러댄다.

취사병

앗, 뜨거... 씨발, 이거 뭐야!

최일병

신상병님! 저... 저기... 보십시오.

허연 수증기 너머로 시커멓게 서 있는 조이병.
자세히 보면 하얀 타일이 붉게 흘러내리는 것은 시뻘건 핏물이다.
조이병이 미친 듯이 스패너를 내려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손!
파이프를 붙잡은 신병의 손은 뼈가 허열게 보일 정도로 피떡으로 짓뭇개져 있다.
병사들, 경악한다.
스패너가 파이프에 닿을 때마다 세면장 안 여기저기서 터지는 샴쌍둥이!
정신이 나간 듯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여전히 스패너를 휘두르는 조이병의 모습에
나가지도 못한 채 벅은 몸으로, 속수무책 뜨거운 수증기 안에 갇혀있는 병사들.

75. GP장실 (현재) - 밤

윤하사

(놀란 표정으로) 그럼, 실종됐던 사람들을 감금시킨
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술하는 GP장을 응시하는 노수사관.

GP장

저도 귀신같은 건 안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느꼈어요. (고개를 저으며) 사고를 일으켰던 신병은
그 때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 것도... 그래서... 전...

76. GP 연병장 (과거) - 해질녘

부GP장

수류탄을 포함해 모든 실탄을 반납하도록 한다, 실시.

GP장의 명령에 슬렁거리는 부대원들.

장병장

(앞으로 나서서) GP장님,
왜 본대에선 아무 조치가 없는 겁니까!

부GP장

(버럭) 그것이 실탄 회수와 무슨 상관이야!

GP장

(부GP장을 제지하며)

내일 들어오는 부식 차편으로 후송조치 하기로 했다.

부GP장

GP장님께서 실탄 회수 결정을 내린 것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모두들 가지고 있는 실탄을 반납하도록 한다.

모두들 망설이는 가운데 부GP장이 실탄을 거둬들인다.

77. G.P 탄약고 (과거) - 낮

탄약고의 자물쇠를 채운 GP장. 키를 목에 건다.

78. G.P 외곽복도 (현재) - 밤

뇌우가 내려칠 때마다 복도 안의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박거린다.
어두운 GP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대원들.

안상병

어... 추워... 이게 뭔 고생이야... 남의 부대 와서
보초까지 서야하구...

곽상병

우린 양반이야 임마... 최일병은 지금 그 살인마 새끼
누워있는 앰블런스에 보초 서고 있어. 이 빛속에 말야.

안상병을 지나쳐 초소 쪽으로 앞장서 걸어가는 곽상병.
무심코 머리를 긁적이는 곽상병의 뒷덜미로 깨알 같은 발진이 나 있다.

79. G.P 내부 초소 - 밤

먼지부스러기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거미줄과 시뻘건 이끼로 가득하다.

곽상병

어따... 귀신 나오게 생겼네...

투덜거리는 곽상병. 플래시로 초소 안 여기저기를 살핀다.
또각또각! 들려오는 군화소리.

곽상병

(복도 쪽으로 돌아보며) 안주영 너냐?

복도는 텅 비어있다.
점점 더 커지는 구두 소리! 누군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곽상병.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구두 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린다.
초소 문을 걸어 잠그고는 뒤로 물러서는 곽상병.
점점 커지는 구두소리가 문 앞에서 딱 그친다.
동시에 부서질 것처럼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문.

곽상병

(잔뜩 공포에 질려) 누구야? 저리가! 저리가란 말이야!

여전히 상대방은 대답이 없다.
황, 황, 황!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완전히 공포에 잠식당한 곽상병의 얼굴!

80. G.P 발전기실 앞 복도 (과거) - 밤

황, 황, 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부대원들 (E.)

문 열어요, 문 열라구요! 부GP장님!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문을 잠그는 선임하사.

부GP장

시끄러워, 오늘만 참아...
너넨 내일 후방으로 보내 줄 거야.

GP장

사고 친 애들은 전부 격리 시킨 건가?

부GP장

네... 마병장조하고는 절대 같이 못 있겠다고
반발이 심해서.. 여기다 따로 있게 했습니다.

81. G.P 발전기실 (과거) - 밤

주병장

(문을 두드리며)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부GP장님!

주병장과 윤상병, 경계하듯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다.
바짝 긴장한 채 서로를 노려보며 감시하는 병사들.
아까부터 한쪽에서 건빵을 집어먹고 있는 조이병. 심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씹지도 않고 건빵을 그저 입속에 꾸역꾸역 밀어 넣고만 있다.

윤상병

뭔가 잘못됐어. 귀신 들린 게 분명해. 마병장이고
박상병이고 그 새끼들, 귀신 들려서 온 게 분명하다구!

이때, 미친 듯이 건빵을 집어먹던 조이병,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게 변한다.
순식간에 긴장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창고 안의 부서진 걸상이며 벽돌을 집어 든다.

조이병

(목이 메어 가슴을 두드리며) 쿨룩쿨룩!

기침을 해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조이병.
그제야 안심하며 손에 잡았던 무기들을 내려놓는 병사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얼어붙은 조이병, 더 이상 건빵을 먹지 못하고 내려놓는다.

82. G.P 화장실 (현재) - 밤

하품을 하며 세면장으로 들어서는 윤하사, 기지개를 편다.
가려워서 손을 긁으면 손등에서 팔뚝으로 죽은 피 색깔의 수포가 돌아나 있다.
윤하사, 가웃거리며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돗물로 팔을 씻어내는데
어디선가 퍽, 퍽 찡는 듯한 소리가 난다.
괜히 신경이 쓰이는 윤하사.
변기 칸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하나... 하나...
마지막 변기 칸을 여는 윤하사의 눈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순간 움찔 뒷걸음질 치는 윤하사. 눈동자가 점점 커지며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윤하사

으아아악! (뒤로 물러서다 나뒹군다.)

개머리판으로 뭔가를 짓이기고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
짓이겨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머리통이다!

83. G.P장실 - 밤

GP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강제로 격리를 했지만 그건
해결방법이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노수사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다급한 군화발 소리와 함께 별격 방문이 열린다.

윤하사

(사색이 된 채 뛰어 들어와) 계장님, 계장님!

84. G.P 화장실 - 밤

피떡이 된 시체만이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있다.
고개를 돌리는 수색대원들.

윤하사

(침을 튀기며) 완전히 미쳐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머리통을 짓이기고 있었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시체를 확인하고 있는 노수사관.

수색대 소대장

(사람들을 둘러보며) 광상병 지금 어디에 있나!

웅성웅성 동요하기 시작하는 수색대원들.
뒤늦게 도착한 선임하사, 비집고 들어오며

선임하사

그게 무슨 소립니까, 광상병이 사람을 죽이다니요?

윤하사

맞아요.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구요.

선임하사

(가웃거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광상병이라면
말입니다. 여기로 오면서 제가 봤는데...

시체를 보고 있던 노수사관, 자리에서 일어선다.

85. G.P 내부 초소 앞 - 밤

선임하사

저기 멀쩡하게 근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가리키는 곳을 보면 초소 안에 광상병이 서 있다.

멀쩡하게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상병. 거총 자세로 근무를 서고 있다.

선임하사, 노수사관 쪽으로 눈치를 살피면

가만히 광상병을 지켜보던 노수사관. 고개를 끄덕인다.

선임하사

광상병... (더 큰 목소리로) 야, 광상병!

광상병

(원 일인가 돌아보며) 네?

선임하사

너, 좀 나와 봐.

어두운 초소 안에서 걸어 나오는 광상병.

밝은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내면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끔찍한 몰골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두리번두리번 하는 광상병.

광상병

무슨 일들이십니까, 선임하사님? 수사관님? ...

야, 너네 왜들 그렇게 쳐다봐?

선임하사

자네... 그게...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가리킨다.)

선임하사가 가리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던 곽상병.

곽상병

(기겁하며 놀라는) 어, 이게 왜 이럴지?

곽상병, 당황하며 몸에 묻은 피를 지우려 하지만 진득한 핏물은 닦여지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

선임하사

이런 개새끼가...

노수사관

(선임하사를 제지하며) 체포해!

무거운 마음으로 곽상병을 체포하는 동료대원들.

86. G.P 식당 - 밤

울면서 사정하는 곽상병.

곽상병

정말이에요... 제가 왜 주영이한테 그러겠어요?

하나 밖에 없는 동인데... 믿어 주세요...

전 정말 모른다구요...

수사관은 곽상병의 하소연에는 아랑곳없이 곽상병의 목 부위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군의관.

군의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뇨?

노수사관, 대꾸도 않고 곽상병만 쳐다본다.

군의관

사체를 다시 검안하라니...

노수사관

(계속 곽상병을 쳐다보며) 저 친구 목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듯 노수사관을 쳐다보다가 광상병을 쳐다보는 군의관.

군의관

목이 어쨌...

광상병의 목에 돌기가 많이 퍼져 있다.

굳어지는 군의관의 얼굴, 라텍스 장갑을 끼고 광상병에게 다가간다.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는 노수사관.

87. G.P 복도 - 밤

골똥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노수사관.

내무반(사건현장) 접근금지선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보초병들(이병장, 구일병)이 경계를 붙인다.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는 노수사관.

“모두 죽여라” 핏물로 벽에 갈겨쓴 글귀 앞에서 가만히 멈춰 서는데

보초병들(이병장, 구일병)이 콜록콜록 재채기하는 소리가 멀리 들린다.

(화면 위로 내레이션)

GP장 (NA)

격리 당한 소대원들이 느끼는 공포는,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컸어요...

88. G.P 발전기실 앞 복도 (과거) - 밤

으악!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찌렁찌렁 GP안에 울려 퍼진다.

팅, 텅! 복도에 불이 켜지면 창고 앞에 부서진 자물쇠!

89. G.P 상황실(과거) - 밤

상황실 안에는 격리됐던 병사들이 상황병을 총으로 겨누고 있다.

윤상병(E.)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쏜다!

탕! 상황실에서 날아온 총알이 복도 쪽으로 튕다.

GP장실에서 나오는 GP장.

GP장

(머리를 숙이며 버럭) 이게 무슨 일이야?

부GP장

격리됐던 애들이 총을 탈취하고 상황실을 점거했습니다.

주병장

진짜로 쓸 거야, 다가오지 마! (상황병을 향해)
바로 당장 본대에 무전을 때려!

부GP장

내 말 좀 들어! 내일 본대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

윤상병

웃기지 마십시오. 하긴 누가 합니까! ... 아무도 못 믿어.
우릴 죽이려구?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
(흥분해서) 다가오지 마!

부GP장

이봐, 말로 하자구. 내가 그 쪽으로 갈게.

밖에 있던 병사들 역시 총을 겨눈 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부GP장이 다가가려고 하자 타타탕! 위협사격 총탄이 날아든다.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

강상병

주병장님! 접니다. 진원이에요...

주병장

닥쳐, 꼴통이든 누구든... 아무도 못 믿어.

강상병

저 보세요. 저 총 없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 둘 옆으로 물러서면
모습을 드러내는 강상병. 팬티차림이다.

강상병

팬티도 벗어야 믿으시겠습니까?

강상병의 등장애 악화일로로 치달던 분위기가 누그러진다.

강상병

(억지로 히죽 웃으며 안심시킨다.) 주병장님. 말년휴가 나가면 저랑 소개팅 하기로 했잖아요... 총 이리 주세요.

강상병이 다가가자 총을 거두는 주병장.
이때, 기회를 타고 조이병의 총을 빼는 GP장.
타탕! 몸싸움 중에 격발된 총탄이 무전기를 박살낸다.
무전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의무병

GP장님, GP장님! 괜찮으십니까?

마치 비디오 화면을 정지시킨 것처럼 순간적으로 모든 동작이 멈춘다.
이때, 스프르 무너지는 부GP장.

강상병

부GP장님, 부GP장님!

주저앉으며 부GP장을 끌어안은 강상병.
축 늘어진 부GP장의 시체. 가슴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GP장

똥들 하고 있나, 당장 이 자식들 체포해!

분대장(정병장)을 선두로 한 소대원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

정병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GP장

(총을 겨누며) 명령이다.

윤상병

그 총에는 더 이상 총알이 없습니다.

당황하는 GP장.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빈 탄창 소리만 난다.

90. G.P 내무반 (과거) - 밤

모두들 모여 앉아있다. 긴장된 분위기. 고참병들만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말하는 병사들만 쳐다본다.

홍상병

이건 하극상입니다.

강상병, 아무 말도 없이 칼로 나무 조각을 쥐고 있다.

윤상병 (가담)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홍상병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구?

주병장 (가담)

부GP장까지 벌써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이나
죽었는데 본대에선 까마득히 모르고 있잖아.

정병장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본대에서 들어 올 테니까...
본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니기미...

강상병

(조심스럽게) 무전기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주병장 (가담)

저 새끼 저거, 상병까지 달구... 새끼... 널 아침
망가진 무전기 땀에 통신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수색대가 투입되게 되어 있다구... 알아들어?

최일병

(눈치 보다 끼어든다.)

지금 GOP로 뛰어가서 본대에 연락하면 안 됩니까?

장병장

시발놈이... 야... 너 교육 어떻게 배웠어? 철책에서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최일병

(기가 죽어서) 무조건 쓰라구요.

이때, 조용히 일어나서 내무실 밖으로 나가는 의무병.

장병장

(힐끗 의무병 쳐다보며) 근데 새까 이 밤중에 나간다구?

주병장

됐어... 시발 내일이면 다 결판나게 돼있어.

91. G.P 발전기실 - 소대장 감금 창고 (과거) - 밤
의무병. 눈치를 보며 GP장에게 다가온다.

의무병

통문 열쇠... 어딴습니까?

GP장, 대꾸 하나 없이 무시한다.

갑자기 GP장의 코앞에 권총을 들이대는 의무병,

총을 쥔 손가락은 벌벌 떨리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의무병

열쇠를 달라구, 시발!

GP장

혼자 도망이라도 가게? 총이나 돌려줘.

의무병

싫습니다.

GP장

너 이거 얼마나 큰 죄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그 총 일로 줘.

옆치락뒤치락 몸싸움이 벌어진다.

도중 총이 격발되면서 의무병의 얼굴 위로 튀는 핏덩이.

털썩 쓰러지는 의무병, 얼굴이 날아갔다.

GP장의 손에 들린 권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벌벌 떨리는 손.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에 무작정 달아나는 GP장.

GP장 (NA)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첨에... 김일병이 죽었을 때에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겁도 나고...

92. G.P 장실 - 밤

노수사관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말을 못하는 GP장, 겨우 입을 뻐다.

GP장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전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음 교신 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 제가 수습할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결국 부하들이 죽은 겁니다. 나 때문에... 무능한 소대장 때문에...

노수사관

소대원들 사이에 괴질 같은 거 혹시 돌지 않았습니까?

GP장,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본다.

노수사관

누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고개를 짓는 GP장.

93. G.P 식당 - 밤

군의원, 사체의 옷을 걷어 올리자 사체의 가슴 부위에 검은 핏줄 자국이 있다.

목에도 돌기 자국이 보인다. 몇몇 사체에서 그런 자국이 보인다.

묵묵히 보고 있는 노수사관.

의무병이 광상병을 데리고 온다.

군요원이 상의를 벗기자 광상병의 몸 전체에 시커멓게 핏줄이 불쑥불쑥 돌아 있다.

소름이 돋도록 징그러운 모습에 진저리를 치는 의무병.

심각한 표정의 노수사관.

94. G.P 취사장 - 밤

라텍스 장갑을 벗어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군의관.

군의관

(세척로션으로 손을 닦으며) 감염 증상이요.

노수사관

감염이라뇨?

군의관

환부의 발진 형태가 바이러스 종류 같소...

죽은 G.P 소대원들도 광상병하고

같은 증상들이 있더군. (추궁하듯) 어떻게 알았소?

묵묵히 듣고만 있는 노수사관. 골똥한 표정이다.

군의관

지금, 이곳에 투입된 수색대원들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소.

그것도 단 몇 시간 사이에...

노수사관의 얼굴에 잠시 동요하는 빛이 떠오른다.

군의관

이유를 알아야겠소... 그게 뭐든 이제는 노원사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요!

노수사관

(어렵게 말을 꺼내며) 그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기도 합니까?

군의관, 깜짝 놀라 노수사관을 돌아본다.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노수사관.

95. G.P 장실 - 밤

넓은 식탁 위에 서류를 비롯해 자료들이 빼곡하게 널려있다.

윤하사

(디카를 노트북에 연결시키며)

복원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노트북에 디카를 연결하자 사진들이 모니터 위에 펼쳐진다.

동굴 앞에서 유격대원 같은 폼을 잡고 찍은 사진들.

노수사관

혹시 마병장... 실종 됐을 때... 어디에 갇혀 있다거나

뭐 특이한 거 없었습니까?

GP장

무슨 폐광 같은데 갇혔다고 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리루 피했다나 봐요...

노트북 사진들을 보고 있는 노수사관.

군의원 역시 그 사진들을 찬찬히 지켜보고 있다.

동굴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인물 뒤로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노수사관

(가리키며) 이 사진, 확대할 수 있나?

노트북 앞에 앉은 윤하사, 몇 번 마우스를 클릭하자

사진 속의 어둠 곳곳에 반짝이는 것들의 모습이 확대되어진다.

윤하사

더 이상은 어려운데요... 이게 대체...?

노수사관, 역시 돋보기를 추켜올리지만 뭔지 잘 분간이 안 된다.

군의원

(가웃거리며) 이거 쥐 아닌가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GP장, 피곤한 기색으로 하품을 한다.

윤하사

피곤할 테니 가서 쉬십쇼. ('그래도 되죠?' 동의를 구하듯 노수사관을 쳐다본다.)

노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하사, 미안해하는 GP장을 일으켜 세워 내보낸다.
GP장을 내보내고 들어오는 윤하사.
군의원은 종이에 계속 뭔가를 그리고 있다.

윤하사

얼추 알고 있는 얘기는 다 한 거 같은데요?

노수사관

(고개 끄덕이며) 딱 한 가지 빼고는 말이야.

윤하사

(당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게 뭔데요?

노수사관

(돋보기를 벗으며) 감기 증세 말이야.

쉴 새 없이 움직이던 군의관의 연필이 갑자기 딱, 멈춘다.
농담하는 줄 알고 피식 웃는 윤하사, 훌쩍거리던 콧물을 닦는다.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는 노수사관과 군의원.

96. G.P 고가 초소 - 밤

투광등 불빛 사이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다.
쏟아지는 빗물을 쳐다보는 노수사관과 군의원. 비에 젖은 연병장을 내려다본다.

군의원

광견병 같은 동물 바이러스의 경우 신경 증세를
동반하는 공격 성향이 있죠...만약 실종됐던 사람들이...
동굴에 있던 들쥐나 아니면 제 3의 숙주에게서 그런
동물 바이러스와 접촉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노수사관

근데...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군의원

잉카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압니까?... 자그마치 3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진 잉카제국이 고작 280명한테... 만분의
1도 안되는 스페인 군대에 괴멸했어요... 왜? 왜 그랬을

까요? 스페인 군대가 강해서? 바이러스 때문이요.
스페인 군대와 함께 온 천연두와 홍역 바이러스요...

노수사관

(믿을 수 없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대관절 감염원이 뭐니까? 어떻게 감염된 겁니까?

군의원, 고개를 젓는다.

노수사관

어쨌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의원

여긴 5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눈을 벌겍게 뜨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이 저주받은 곳에서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어쨌든 내 알 바 아닙니다.

노수사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일이 돼버렸습니다...

군의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의 바이러스 중에 인간이 정복한 바이러스는 오직
천연두 하나뿐입니다... 것두 5억 명이나 죽은 다음에
말이에요.

노수사관

(골똘한 표정으로 혼잣말) 그런데... 강상병은 왜 사람들
을 죽인 거지... 바이러스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군의원

(분통을 터뜨리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소!

노수사관, 물끄러미 쳐다본다.

군의원

문제는 광상병도 감염이 되었다는 거요. 그건 곧 또
다른 광상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우리 모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찌뽀한 듯 말꼬리를 흐린다.)

노수사관
일단 본대에 알리고... 격리를 시킵시다.

97. G.P 부식창고 - 밤

ins. 카메라를 향해 뭔가를 이야기하는 강상병.
렌즈 안에 잡히는 배경이 부식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수사관
너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

강상병이 앉았을 만한 자리에 앉아보던 노수사관.
옆에 있던 나무로 된 쌀통이 눈에 띈다.

98. G.P 의무실 - 밤

의무실 야전침상에서 쉬고 있는 GP장, 벽을 보고 모로 누워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임하사, 병사(이병장)에게 묻는다.

선임하사
야, 최병장 못 봤어?

이병장
못 봤는데요.

선임하사
야, 너라도 판초의 좀 췌봐. 강상병인지 뭔지 하는 새끼
하나 때문에 무슨 보초까지 세우고 말이야.

자는 척 누워있던 GP장, 그 말에 번쩍 눈을 뜬다.

99. G.P 부식창고 [취사장 안] - 밤

삐거덕, 쌀통뚜껑이 열리면
뚜껑에 붙어있는 거울에 노수사관의 얼굴이 비친다.
레이싱 걸들의 음란한 도색 사진으로 도배된 쌀독 안에는 먹다 남은 건빵 봉지며
치즈 한 통이 묻혀있고 미니 사진첩도 나온다. 취사병의 비밀 사물함 같다.

사진첩을 넘겨보는 노수사관.
동료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 애인사진 등등 사진마다 설명이 붙어있다.
노수사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다 도로 앞장을 펼친다.
옷통을 벗고 찍은 동기 사진이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의 노수사관, GP장실로 뛰쳐나간다.

노수사관
(GP장실 문을 박차며)그 친구 지금 어디에 있나?

윤하사
누구 말씀이십니까? GP장 말씀입니까?

노수사관
... 아니야! 그 놈이 아니야!

100. G.P 입구 - 밤

GP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GP장.
연병장에 세워진 앰블런스 행렬을 지켜보고 있다.
담배를 집어던지는 GP장,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걸어간다.

101. 앰블런스 (G.P 연병장) - 밤

앰블런스를 향해 걸어가는 GP장.
경계병들이 보일 때마다 기겁을 하며 뒤로 숨는 GP장.
앰블런스 문을 열고 들여다본 후 다시 닫는다.
두 번째 앰블런스 문을 열면 시트가 덮여있다.
불이 꺼져있는 심장 박동기.
GP장, 천천히 시트를 젖히면 강상병이 눈을 뜬 채 누워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GP장
(내려다보며) 속았군..

강상병을 내려다보는 GP장의 눈빛이 잠시 떨린다.

102. G.P 의무실 (과거, 씬57와 동일) - 밤

직부감으로 보여 지는 의무실의 모습.

김일병을 내려다보는 GP장. (GP장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다.)

GP장

마병장이 널 공격했나? 괜찮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김일병

모르겠어요...

GP장

모르다니...?

김일병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당혹스러워하는 GP장을 쳐다보는 김일병.
김일병의 얼굴이 서서히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GP장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김일병

GP장님, 왜 그러세요?

발작을 일으키던 GP장, 침대에 꽂혀있는 링거 지지대를 뽑아 들고
김일병을 내려찍기 시작한다.
비명을 지르는 김일병, GP장을 피해 프레임 아웃 된다.
김일병을 쫓아가는 GP장 역시 프레임 아웃 된다.
오프 사운드로 들리는 김일병의 처참한 비명소리.
직부감에 있던 카메라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
거울로 다가가는 카메라.
거울엔 구석에 몰린 김일병을 내려찍는 GP장의 뒷모습이 비친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무병.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의무병의 뒷모습을 따라 다가가는 카메라.
의무병, 쓰러져있는 김일병의 상태를 확인한다.
피 묻은 링거 지지대를 든 채 서 있는 GP장의 뒷모습.
천천히 일어서는 의무병, GP장과 더불어 되어
의무병 역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GP장

(링거 지지대를 내팽개치며) 내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침착하게 손으로 거울을 가리키는 의무병.

거울을 쳐다보는 GP장.

거울 속에 GP장의 얼굴과 의무병의 얼굴이 비친다.

이때, 처음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비춰진다.

GP장과 의무병의 얼굴이 바뀐 것이다.

GP장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고 얼굴에는 검은 핏줄이 돌아있다.

GP장

너... 너만 가만있으면 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의무병.(이하 권의무병)

103. GP장실 (과거, 씬58와 동일) - 밤

부GP장

(난감한 얼굴로) 마병장조를 격리해도
소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는 GP장. 손톱 밑에 남은 핏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부GP장이 눈치 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바지에다 문질러 지운다.
권의무병, 눈치를 보고 있다.

GP장

개들, 일단 격리시킵시다.

이때, 상황병이 뛰어 들어온다.

도상황병

GP장님!... 김일병이, 김일병이... (말을 못하면)

부GP장

김일병이 뭘 어쨌단 얘기야, 새끼야!

도상황병

김일병이 죽었습니다.

순간 자책감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권의무병.

104. G.P 청문(과거, 씬52와 동일) - 낮

마병장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서는 GP장.
부GP장,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GP장

걱정 마, 몇 시간이면 될 텐데...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GP장과 마병장 일행. (션52에 GP장이 추가)

105. G.P 연병장 (과거, 씬53와 동일) - 아침

이른 새벽, 얼굴에 검댕까지 칠한, 완전군장의 사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다.
그 가운데 강상병도 섞여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지역을 설명하는 부GP장.
먼동이 트는 하늘을 뒤로 연병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GP장과 마병장 일행.
미친 듯이 짚어대기 시작하는 개.
동료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GP장.
부GP장 달려가서 GP장을 끌어안는다.

106. G.P 내무반 (과거, 씬54와 동일) - 낮

권의무병이 조용히 링거 병을 바꿔주고는 옆에서 등을 쳐놓고는 책을 읽고 있다.
옆에서 GP장이 자고 있다.
문득 고개를 드는 권의무병, 깜짝 놀란다.
잠을 자던 GP장이 멀쩡한 얼굴로 반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황급히 눈길을 돌리며 돌아서는 권의무병,
다시 쳐다보면 곤히 자는 GP장.

107. G.P장실 (과거) - 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분대장 일지며 근무일지를 짹짹 찢고 있는 GP장.

권의무병

감염 증세가 분명합니다...본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감염기가 있어 보이는 검은 핏줄이 돌아있는 GP장.

GP장

(근무일지를 찢으며) 감염 같은 건 없어.없어야 한다 구!... 나한테 지금 시간이 필요해... 시간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무일지도 다시 작성하면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찢어낸 종이를 권의무병에게 건네 준다.) 난, 이거나 애들 모르게 없애버려...

108. G.P 상황실 (과거) - 밤

본대와 교신하고 있는 GP장, 얼굴에는 감염기가 확인한 검은 핏줄이 선명하다.

GP장

506 G.P, 총원21, 현재원 21, 사고무!
부대 이상 없습니다. 예! 계속 근무 하겠습니다. 총성!

불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권의무병.

109. 앰블런스 앞 (G.P 연병장) - 밤

앰블런스에서 나오는 권의무병.

백운전병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나가던 경계병(백운전병)이 권의무병을 발견한다.
눈이 마주치는 권의무병, 당황하는데
경계병(백운전병)의 귀밑으로 심한 발진 형태의 감염 증세가 눈에 띈다.
순간 뭔가를 눈치 챈 듯 얼굴이 굳어지는 권의무병.

백운전병

움직이지 마십쇼! 거기 머리에 손 올리고...

경계병(백운전병), 호루라기를 불려고 한다.
권의무병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진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경계병(백운전병). 발작을 일으킨다.
권의무병, 놀란다.
갑자기 꿈쩍도 않고 바닥에 처박히는 경계병(백운전병).

권의무병, 천천히 경계병(백운전병) 곁으로 다가가는 권의무병.
죽었는지 흔들어보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진다.
바닥에 떨어져있는 경계병(백운전병)의 컷바퀴.
녹아내리듯 흘러내리는 얼굴가죽.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권의무병
(귀찮은 얼굴로) 또 시작이군...

권의무병, 링거 지지대를 들어 경계병(백운전병)을 갈긴다.
하지만 이미 늦어서 타이밍을 놓친 권의무병.
경계병(백운전병)의 공격을 받고 진흙탕 위에서 함께 뒹군다.
경계병(백운전병)의 총을 잡아드는 권의무병.
방아쇠를 당기지만 비 때문인지 격발이 안 된다.
그대로 대검으로 경계병(백운전병)의 손을 찍어 그대로 땅바닥에 쫓는다.
엠블런스에 올라 타 경계병(백운전병)을 몽개버린다.
그대로 차 밑에 깔려버리는 경계병(백운전병).

110. G.P 복도 - 밤

수색대원들을 데리고 뛰어오는 수색 소대장.

수색대 소대장
벙커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임하사
아까 강상병 땀에...

노수사관, ‘왜?’ 하는 표정으로 쳐다 볼 때
의무병이 벙커 출입문을 열고 소리친다.

양의무병
수사관님, 수사관님!

이때,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난다.

111. 엠블런스 부근 (G.P 선병장) - 밤

타이어 밑에 깔린 경계병(백운전병)의 사체를 본 사람들 경악한다.
경계병(백운전병)을 깔아뭉개고 통문 쪽으로 급 발진하는 엠블런스.

대원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 총을 쏘는 노수사관.
사이드 밀러가 깨지고 앞바퀴가 터지며 비틀거리는 앰블런스
통문 옆에 쌓아둔 드럼통을 들이 박고 멈춘다.
앰블런스 쪽으로 달려가는 수사관 일행.
몇 명은 부상당한 경계병(백운전병)에게 달려간다.

노수사관
체포해!

수색대 소대장,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지만 일단 명령을 수행한다.
권의무병을 차에서 끌어내어 체포하는 수색대원들.

권의무병
(수사관을 비웃듯) 생각보다는 늦으셨군요.

자포자기한 듯 권의무병, 이제까지와는 달리 악마적인 미소를 짓는다.

노수사관
거짓말을 했어, (수색소대장에게 사진을 준다.)
GP장이 아니라 의무병이야.

수색대 소대장
그럴 수가...

웃통을 벗고 찍은 동기 사진이다.
[나의 소중한 동기들, 나 짬뽕, 돌팔이 권정민, 꿀통 강진원]이라고 쓰여진 사진.

윤하사
정체가 탄로날까봐 죽이러 온 거군요.

이때, 갑자기 으아악! 비명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노수사관과 윤하사.
의무병(양의무병)이 대검에 찢린 발을 붙잡고 나자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 의무병(양의무병)을 쫓아 집요하게 기어가고 있는 경계병(백운전병)!
이미 변태를 거쳐 흉측하게 변해있다. 하체는 바퀴에 깔려 뜯겨나간 채로
상체만 남은 몸뚱이를 끌며 기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에 경악하는 대원들.
노수사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는 경계병(백운전병)을 쏜다.

퍽 뇌수가 터지면서 머리가 박살이 난다.
그제야 그 자리에 축 늘어지는 경계병(백운전병).

112. G.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감금되는 창고 - 밤

정이병과 최군건병이 권의무병을 의자에 묶는다.

권의무병

(악마 같은 미소를 띤 채 정이병에게)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없나? ... 이제 사람들이
널 무서워하게 되겠군.

최군건병

(겁에 질리면서도 지지 않고) 닥쳐, 이 새끼야!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다루듯 권의무병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대원들.

권의무병

불쌍한 놈들... (킬킬거리다가 이내 씩씩하게 자조 섞인
미소를 짓는다.) 진원이... 넌 죽어서도 나를
붙잡는구나.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다.)

113. G.P 상황실 [과거, 씬89과 동일] - 밤

총부리를 저누고 있는 소대원들.
개중에는 감염된 기색이 역력한 병사들이 많이 있다.
타탕! 몸싸움 중에 격발된 총탄이 무전기를 박살낸다.
스르르 무너지는 부GP장.

강상병

부GP장님, 부GP장님!

주저앉으며 부GP장을 끌어안은 팬티차림의 강상병.
축 늘어진 부GP장의 시체. 가슴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GP장

똥들 하고 있나, 당장 이 자식들 체포해!

분대장(정병장)을 선두로 한 부대원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GP장

(버럭 소리 지르며) 내말 안 들려?

정병장 (가담, 감염증세)

왜 그랬습니까? 그때.. 마병장이 사고 쳤을 때 바로 조치만 취했어도..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텐데.. 왜.. 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대답은 못하고 총만 부여잡고 있는 GP장의 당황스런 표정

주병장

(비웃듯 소대장을 노려보며) 뻔하지. 그럼 GP장이란 작자가... GP 비우고 나갔다가 실종됐던 거까지 보고해야 되니까... 총장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지...

점점 GP장을 향해 다가오는 병사들.

GP장

(총구를 이리저리 돌리며) 니들.. 이건 하극상이야.. 군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큰 죄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장병장

아니, GP장님이 직무유기한 걸 바로 잡았을 뿐이죠.

당황하는 GP장.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빈 탄창 소리만 난다.

윤상병 (가담, 감염증세)

그 총에는 더 이상 총알이 없습니다.

114. G.P 내무반 (과거, 씬90과 동일) - 밤

모두들 모여 앉아있다. 긴장된 분위기. 병장급만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말하는 병사들만 쳐다본다. (감염증세 보이는 병사가 섞여있다.) 가담병장들(감염증세), 옆에서 걱정스런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쉰다.

주병장

걱정 마, 군법에 회부돼도 우리가 유리해...

강상병, 아무 말도 없이 칼로 나무 조각을 깎고 있다.

홍상병

만날 상황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까 보셨죠? 얼굴에 검은 핏줄
올라온 거... GP장도 그때, 병 걸려서 온 게 분명해요.

정병장

(쓴 맛을 다시다) 야, 권정민이, 너... 뭐 아는 거 없어?
의무병이니까 GP장 저런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냐.

괴이쩍은 눈으로 지켜보는 동료들. 권의무병을 뒤통한다.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하는 권의무병.

강상병

(끼어들며) 에이, 정민이 이 자식.. 돌팔이잖아요.
기껏해야 빨간약이나 바르는 앤데요... 아시잖아요.

주병장

됐어, 시발... 내일이면 다 결판나게 돼있어.

소대원들이 이야기하는 틈을 타 슬그머니 일어서서 나가는 권의무병.
그런 의무병을 쳐다보는 강상병.

115. G.P 창고 앞 복도 (마병장일행 감금 창고, 과거) - 밤

어두운 복도를 허겁지겁 뛰어가는 권의무병.
그 뒤를 강상병이 쫓아가고 있다.
쫓기던 권의무병, 걸쇠가 걸린 창고 앞에서 멈춰 선다.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 안으로 숨는 권의무병.
한참 뒤에 나타나는 강상병.
창고 앞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116. G.P 창고 (마병장일행 감금 창고, 과거) - 밤

창고 안으로 플래시를 비추는 강상병.

강상병

너만 살자고 도망가면 어떡해! 너까지 왜 이래.

숨어있는 의무병 뒤로 아슬아슬하게 플래시 광원이 훑고 지나간다.
조용한 창고 안, 플래시 광원 안에 수상한 기척이 잡혀서 보면
박상병이다.

강상병, 그제야 마병장 조가 갈혀있는 창고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때, 뒷덜미로 이상한 숨소리와 함께 뜨거운 입김이 느껴진다.
벌벌 떨며 돌아보는 강상병의 눈앞에
변태를 거쳐 끔찍하게 변해버린 마병장이 서 있다!
여윈 몸, 허물어진 얼굴에는 귀와 코는 이미 떨어져나가고 눈자위는 텅 비어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강상병.
서서히 다가가는 마병장.
눈을 질끈 감은 채 무력하게 주저앉은 강상병 위로 푹푹 점액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다.
강상병, 눈을 뜨면
마병장은 천천히 부서진 창고문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다.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상병.
권의무병도 천천히 강상병 곁으로 다가온다.

박상병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공격 안 한 걸 보면... 감
염이 된 것이 분명해... 너희들도...

이때, 바깥에서 들리는 처참한 비명소리.
총을 잡고 나가려는 강상병의 발을 붙잡는 박상병.
권의무병은 그대로 창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박상병

부탁해... (애원하듯) 너무 아파...

무슨 뜻인지 눈치 채는 강상병, 당황하며 고개를 돌린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떨어져나가고 있는 박상병의 몸.

박상병

아...파 (통증이 심해지는 듯) 옴마...옴..마...

발작이 온 듯 물밖에 떨어진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는 박상병.
내려다보는 강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모포로 박상병을 덮는 강상병,
박상병을 품에 꼭 끌어안는다.

바닥에 널브러지는 박상병,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던 몸뚱이가 고요해진다.

117. G.P 식당 (현재) - 밤

노수사관, 수색대 소대장, 군의관, 선임하사, 운하사
담배 연기만 자욱한 가운데 모두 아무 말이 없다.
노수사관, 고개를 끄덕인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동, 비장한 얼굴이다.

118. G.P 구 내무반 - 밤

집합해있는 수색대원들. 개중에 몇 명은 검은 핏줄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다.

수색대 소대장

니들도 알겠지만 지난 몇 시간 사이 급속하게 괴질이
번지고 있다. 만약의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격리조치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군의관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검사할 것이다.
이에 모두 협조해주기 바란다. 질문 있나?

평소와 달리 아무도 대답이 없다. 다소 긴장된 분위기.

선임하사

이 새끼들이... 대답 안 해!

약간 당황한 선임하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수색소대장이 제지한다.
대원들 사이로 지나가는 군의관.
군의관이 지나갈 때마다 관동성명을 외치며 앞으로 나오는 대원들.

최군견병

병장 최영철!

군의관

오른쪽!

이병장

병장 이경훈!

군의관
자넨 왼쪽!

말 한 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는 대원들.
지목 당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검은 핏줄이나 수포자국이 있는 감염자들이다.
윤하사, 손등으로 타고 내려오는 검은 핏줄을 감추기 위해 소매를 끄집어 당긴다.
이때, 윤하사 앞에 서는군의관.

윤하사
하사 윤정식!

소매를 내린 것을 눈치 채는군의관.
윤하사, 간절하게군의관을 쳐다본다.
윤하사의 시선을 피하는군의관, 그냥 지나간다.
감염군으로 분류된 대원들은 나눠주는 마스크와 장갑을 받아들고 있다.

119. 6.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감금된 창고) - 밤

권의무병, 안간힘으로 포박 줄을 풀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우드득!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의자 뒤로 뚝뚝 떨어지는 핏물.
처참한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권의무병, 의자에 묶인 채 의자를 발전기에 부딪친다.
발전기에 의자를 부딪칠 때마다 불안하게 깜박거리는 창고 불빛.

120. 6.P 구 내무반 - 밤

총을 든 채 서 있는 비감염대원들.
한쪽에서는 총기 회수에 저항하며 감염대원들이 동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총기를 회수하려는 비감염대원 최군견병.
감염대원 이병장, 뺏기지 않으려고 총을 놓지 않자

최군견병
(거들며) 왜 그래 소대장님이 걸으라잖아.

옆에 있던 감염대원 선군견병과 황TOD병이 총을 들면서 끼어들다.

선군견병
왜 총을 뺏으려고 지랄이야?

“시발” 감염대원들이 총까지 빼들며 겨누자
비감염대원들까지 반사적으로 총을 들면서 다소 어색한 상황이 벌어진다.
지켜보는 수색소대장과 선임하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선임하사

(버럭)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들이야?

수색소대장은 직접 나서서 감염대원들에게로 다가간다.

수색소대장

아까도 말했지만 임시방편이다. 복구대 올 때까지
너희는 그냥 여기서 쉬는 거야. 그래서 반납하라는
거니까 총은... 애들한테 주도록 해.

수색소대장, 자연스럽게 감염대원 이병장의 총구를 잡으며 끌어당기지만
완강하게 총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병장.

이병장

못 주겠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감염대원들을 돌아보며) 니들도 총 뺏기지 마, 씨발!

다른 감염대원들까지 철컹, 장전된 총을 들며 경계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포커페이스 노수사관의 얼굴에도 잠시 동요하는 빛이 스친다.

수색소대장

(이병장에게 화가 난 듯) 이 자식이 정말...

수색 소대장,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는데 어쩐지 얼굴이 변한 것 같다.
그 모습에 의아해하는 비감염대원들.

수색소대장 (E.)

니들 왜 이래?

감염대원들 역시 뒤늦게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란다.

- (Ins) G.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감금된 창고)

피투성이가 된 권의무병, 거의 부서진 의자를 발전기에 내려친다.

포박이 플리는 동시에 전기가 나간다.

갑자기 불이 나간다.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하는 대원들.

“어, 뭐야?” “왜 이래?”

웅성대는 대원들, 어둠 속에서 총구를 이리저리 겨눈다.

황TOD병(감염대원)

뭐야, 시발, 불켜! 불 키라구!

감염대원들이 불안하게 총구를 이리저리 돌리자
비감염대원 역시 당황하며 총을 거머쥐며 겨눈다.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감염대원 이병장, 깜짝 놀란다.
눈앞의 수색소대장의 얼굴에 뚜렷하게 감염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수색소대장

이병장, 명령이다, 어서... 커억! (변태를 일으킨다.)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오는 수색대장.

당황해 뒷걸음질 치던 이병장, 겁에 질려 엉겁결에 총을 발사한다.

괴성을 지르며 총을 난사하는 이병장의 총탄이 비감염대원들 쪽으로 튄다.

본능적으로 대응사격을 하면서 동시에 캄캄한 실내에 수십 발의 총탄이 튄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처참한 비명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사격중지! 사격중지!”

<시간경과>

불이 꺼진다.

그제야 사격을 멈추고 총을 내리는 대원들.

순식간에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린 방 안은 동료들의 참혹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대원들, 말문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다.

쓰러진 시체들을 살피는 군의관.

비감염대원인 최군견병, 눈앞의 시체를 쫓히면 총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던
감염대원 이병장이다.

최군견병(비감염대원)

(비통에 젖어) 아니야, 아니야...

비감염대원들, 하나둘 상황을 깨달은 듯 두려움과 죄책감에 떠난다.

조상황병(비감염대원)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변운전병(비감염대원)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럴려고 했던 게 아니라구...

김의무병(비감염대원)

어차피... 위험해서... 그래서 격리까지 하려고 했던 거
잖아... 아니야... 우린 잘못 없어... 없다구...
(멍하니 서 있다 밑을 내려다본다.)

팔이 하나 떨어져 있다.

무심코 집어 드는 김의무병.

경악하는 다른 동료대원들.

여전히 인식 못하고 왜 그리냐는 식으로 동료들을 쳐다보던 김의무병.

그제야 자기 팔임을 알아채고 비명을 지른다.

군의원, 김의무병의 팔을 응급조치하고 붕대로 감아준다.

정이병

이상해요... 어떻게 우리만 살아남은 거죠?

변운전병

새끼야, 살아남은 것도 불만이야...

정이병

불까지 꺼져있었잖아요. 근데 왜 감염자들만 죽은 거죠?

그 소리에 정이병을 쳐다보는 군의원.

알 수 없는 한기가 온몸을 감싼다.

김의무병(팔없는 대원)

이상해요.... 통증이....통증이 안 느껴져.

사람들, 뒤늦게 자신의 몸을 살핀다.

놀라던 군의원, 수사관과 눈이 마주친다.

노수사관
.....!

121. G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감금된 창고) - 밤

쾅! 문을 열고 들어서는 노수사관.
권의무병, 부서진 의자로 연신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부수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의 권의무병의 모습이 플래시 불빛 아래 드러난다.
그제야 자신의 몸이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권의무병.
자포자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는다.

노수사관
(역살을 붙잡고) 바른 대로 얘기해. 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권의무병, 축 늘어진 채 킁킁 웃기 시작한다.

122. GP 발전기실 (GP장이 감금된 창고, 과거) - 밤 창고 문이 열리면서 권의무병이 들어온다.

GP장
이제 복구대가 오면 너네는 끝장이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너네가 하극상까지 일으킨 덕분에
변명꺼리까지 생겼으니... (갑자기 놀라 입을 다문다.)

불빛 아래 드러나는 권의무병의 얼굴에 흥측한 검은 핏줄이 가득하다.

권의무병
너 때문이야...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니가 거기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든 건 너야.

총을 빼든 권의무병.

권의무병
난 살아남을 거야... 악착같이...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시간경과>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얼굴에 총상을 입은 채 널브러져 있는 권의무병의 시체.
내려다보는 대원의 얼굴도 심하게 변해가고 있다.

주병장

정민이 까지 죽이고... GP장 이 개새끼...

나가는 대원.

한 구석에 숨어있는 권의무병, 반팔 차림이다.
손에는 죽은 GP장의 군번줄을 쥐고 있다 자기 목에 건다.
위장크림을 바르는 권의무병. 마치 자기 최면을 하듯 중얼거린다.

권의무병

난 살아남을 거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구...

123. G.P 식당 (과거, 씬 34와 동일) - 밤

보일러실에서 담요가 덮인 채 구출되는 권의무병. 얼굴에 위장크림이 발라져있다.
담요를 덮은 채로 식탁 앞에 앉아있다.
정미병이 식판을 권의무병 앞에 놓아준다.
잔뜩 겁에 질린 채 정미병과 노수사관을 쳐다보던 권의무병.
문득 스테인리스 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위장크림이 벗겨진 사이로 검은 핏줄이 사라져있다.
천천히 위장크림을 지우는 권의무병, 말끔한 것을 알 수 있다.
왈칵 눈물이 솟는 권의무병. 애써 감추며 미친 듯이 입에 밥숟갈을 우저넣는다.

124. G.P 창고 (곽상병이 갇힌 창고, 현재) - 밤

플래시 불빛을 비추자 구석에 숨어있는 곽상병의 모습이 드러난다.
곽상병의 얼굴을 들어올리는 군의관.
얼굴이며 몸에 있었던 검은 핏줄이 말끔히 사라져 있다.

권의무병 (NA)

멀쩡해지다니... 그건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 빌어먹을
이놈의 괴질이 사람을 갖고 논 거지...

125. G.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갇힌 창고, 천재) - 밤

권의무병

진짜 감염증세가 발전된 사람은 검은 핏줄이 사라졌어.

노수사관

없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잖나?

군의관

그 사람들... 핏줄이 사라지지 않고 수포가 만들어졌던
사람들은... 어쩌면... 어쩌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었
을지도 몰라요.

노수사관

그게 무슨 소립니까!

군의관, 괴로운 듯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싸꿍다.

과다한 출혈로 기력이 약해지는 권의무병,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악담을 퍼붓는다.

권의무병

아직도 모르겠어... 너네가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반대로 됐다는 거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굳어지는 노수사관의 얼굴.

126. G.P 구 내무반 - 밤

널브러진 사체들 앞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대원들. 아무도 말이 없다.

몇몇은 막막한 표정으로 훌쩍이고만 있다.

최군견병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톱을 붙잡고 있는데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손톱이 하나씩 빠진다.

최군견병

(울컥해서)... 엄마... 엄마...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는 대원들.

진물이 흐르는 피부는 손이 닿을 때마다 뭉개지더니 투둑, 떨어져나간다.

127. G.P 2층 속상 - 밤

쏟아지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는 노수사관.
물끄러미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본다.
빙긋이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

128. G.P장실 - 밤

GP장실로 들어서는 노수사관.
뭔가를 찾는지 책상 위를 뒤지다가 문득 기척 소리에 돌아본다.
GP장실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숨어있다.
천천히 다가가면 윤하사이다.

노수사관

윤하사? 자네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윤하사,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든다.
놀라는 수사관.
윤하사의 얼굴에 뚜렷하게 감염증세가 나타나 있다.
노수사관을 쳐다보며 겸연쩍게 웃어 보이는 윤하사, 눈가엔 눈물 자국이 묻어있다.
윤하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다가가는 노수사관.
자꾸 얼굴을 숙이며 피하는 윤하사.
가만히 윤하사를 끌어안는 노수사관, 얼굴에 만감이 교차한다.
천천히 권총을 꺼내는 노수사관.
윤하사, 각오한 듯 눈을 감는다.
윤하사를 끌어안고 침통해하는 노수사관의 얼굴 위로 총성이 울린다.

129. 앰블런스 (G.P 선병장) - 밤

앰블런스 조수석에 앉아 탄창에 탄알을 장전하고 있는 노수사관.
쏟아지는 비.
군요관이 다가와 똑똑 차창을 두드린다.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탄약을 채는 노수사관.

군요관

본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요?

노수사관, 듣는지 마는지 계속 자기 일을 한다.
디지털시계는 5:40을 가리킨다.

수사관 옆에는 짝 채워진 탄창과 수류탄, K-2소총이 놓여져 있다.
군요관이 차문을 열려고 하자 잠금장치를 누르고 계속 탄알을 장전하는 노수사관.
군요관, 운전석 쪽으로 올라탄다.

군요관

당신 뭐 하는 거요?

노수사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치료제가 있소, 없소?

군요관

에이즈 백신이 개발 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조류 독감, 사스, 에볼라바이러스 그런 거 백신이 개발됐다는 말 들어 봤냐구... 가짜 GP장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때마다 변종이 생기고 있어요...

노수사관

치료제가 있소, 없소?

군요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전공은 내과라구...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곤... 고작 바이러스는 숙주 없인 살 수 없다는 거, 그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다는 거 밖에는...

노수사관

감염자가 죽으면 감염자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죽는다는 말인가?

군요관

(‘웬 소리를 하는 거야’하는 표정으로) 뭐요?

노수사관

(이제야 군요관을 쳐다보며) 그럼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가 다 죽으면 바이러스도 다 죽는다는 거지?

군요관

당신... 무슨 얘길...

탄약 뭉텅이와 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노수사관.

따라 내리는 군의관.

130. 6.19 연병장 - 밤

진창이 된 연병장을 걸어가는 노수사관.

걸어가는 노수사관, 수사관을 잡아채는 군의관.

뒤따라오는 군의관, 빗소리 때문에 고함을 치듯 얘기를 한다.

군의관

당신... 설마...?

이때, 번개가 번쩍거린다. 짧은 순간 노수사관의 표정이 보여 진다.

다시 걸어간다, 다시 잡아챈다.

노수사관

(흔젓말처럼) 강상병이 왜 자기 부대원을
다 죽였는지 알 거 같아...

군의관

미쳤군...

노수사관

(총구로 GOP쪽을 가리키며)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게 끝이요...

군의관

그렇다고... 모두 죽일 수 없는 거잖소. 우리가 다 죽는
다고 해결될 거 같아?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 지도
모르는 판인데... 우리말고도 또 다른 숙주가...

노수사관

그건 우리 능력 밖이요... 잘난 인간들 많은 본대에서...
알아서 처리 하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만이라도
해봐야지...

저벅저벅 걸어가는 노수사관.

군의관

그 누구라도... 이럴 권리가... 이럴 자격이 없어...

이건 학살이라구, 학살...!

노수사관,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131. G.P 구 내무반 - 밤

구두코 위로 푹푹 떨어지는 점액질, 보면 선임하사이다. 자기도 모르게 점액질을 흘리고 있는 선임하사, 행여 누가 볼세라 얼른 침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지포라이터로 비쳐지는 누군가의 얼굴.

한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정이병이다.

변운전병 (정이병 뒤쪽에 앉아있던)

암마 뭐해?

돌아보는 정이병, 얼굴 반쪽에 위장크림을 칠하던 중이다.

변운전병

(깜짝 놀라며) 저 새끼, 저거...

정이병

이러면 모를 거 아닙니까?

변운전병

모르다니 뭘 새끼야...

정이병

이러면 복구대 애들이 와도, 못 알아볼 거 아니냐구요?

최군건병 (정이병 옆에 앉아있던)

저 또라이 새끼, 저거...

고개를 번쩍 드는 선임하사. 눈빛이 빛난다.

132. G.P 식당 - 밤

머리를 감싸 쥔 채 책상 앞에 앉아있는 군의관.

관초우의에 쌓인 K-2 소총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133. G.P 구 내무반 - 밤

문을 벌컥 열면서 상황병이 뛰어 들어온다.

상황병

복구대가 출발했습니다.

선임하사

알았다.

선임하사를 필두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나가는 대원들.

134. 몽타쥬 - 밤

- (GP장실) GP장실을 뒤지는 조상황병,최군견병.

- (창고) 광상병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변운전병,김의무병.

- (중앙복도) 잠겨있는 병커 출입문을 흔드는 정이병. 문이 잠겨 있다.

정이병

선임하사님! 문이 잠겼습니다.

중앙복도 로비에 서 있는 선임하사. 낭패스런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린다.
대원들이 나타나며 보고를 한다.

조상황병,최군견병

아무도 없습니다.

병커출입문에서 내려오는 정이병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얘기한다.

정이병

문이 잠겼다구요!

선임하사

(짜증을 내며) 알았어, 임마! 수사관이나 찾아!

그 인간이 잠갔으니까... 키도 그 인간이 갖고 있겠지.

이때, 대원3, 4가 복도에서 뛰어오며 보고를 한다.

변운전병,김의무병
곽상병이 죽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 정이병.

선임하사
잘 들어... 여기 GP애들은 강상병 그 새끼가 다 싸
죽인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곽상병이나 우리 대원들
은... GP장인 그 또라이가 죽인 거다... 괴질이나
전염병은 ... 여기... 없었다. 애초부터 없었다... 알았나?

대원들
예!

철컹, 노리쇠를 전진시켜 총알을 장전하는 선임하사.
대원들도 장전한다.

135. G.P 복도 - 밤

미로 같은 복도를 수색하는 대원들. 코를 킁킁거린다.

조상황병
으, 석유냄새...

최군건병
비 때문에 냄새가 안 빠져서 그런 거야.

선임하사, 바닥에 질퍽한 물을 맛보고는 얼굴을 찌푸린다.

선임하사
그런 게 아니야... 새로 석유를 뿌렸어.

당혹해하는 대원들.

조상황병
왜요? 설마... 그 늑은이가 우릴 죽이려는 건 아니겠죠?

정이병

(여전히 얼뭉한) 누가요? 수사관님이요? ...
수사관님이 왜요?

선임하사

닥치고 찾거나 해!

136. G.P 발전기실 (권의무병이 감금된 창고) - 밤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고 앉은 권의무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면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져있는 권의무병의 모습이 드러난다.
역광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
고개를 드는 권의무병, 시야가 흐리다.
권의무병 앞에 서는 노수사관.
올려다보는 권의무병.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권의무병의 표정을 알 수 없다.
노수사관, 총을 빼든다. 탕!

137. G.P 복도 한 칸 - 밤

복도 저편에 나타나는 노수사관.

정이병

수사관님, 수사관님!

정이병이 부르지만 모퉁이로 사라지는 노수사관.

정이병

선임하사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뒤를 쫓는다.)
수사관님이에요, 수사관님!

대원들, 뛰어온다.

정이병

수사관님이 석유를 뿌리고 있었어요.

선임하사

뭐?

사람들, 뒤쫓아 가기 시작한다.

뒤늦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쫓아오는 대원들을 눈치 챈 노수사관.

노수사관

(흔жат말) 아직은 아니야...

138. G.P 복도 한 칸 (몽타쥬) - 밤

쫓고 쫓기는 가운데 헤매는 대원들.

한참 쫓다보면 막다른 벽이 나오고

도끼에 찍힌 드럼통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다.

대원들, 계속 쫓지만 같은 곳만 또 나온다.

최군건병

거기 반대쪽으로 가봐!

돌아서가는 대원들, 한참 쫓아가다보면

막다른 벽 앞에 도끼에 찍힌 아까 봤던 드럼통이 또 나온다.

당황하는 대원들.

139. G.P 화장실 - 밤

화장실 안에 석유를 뿌리고 있는 노수사관.

140. G.P 복도 한 칸 - 밤

한참 헤매고 있는 가운데 선임하사, 발걸음을 멈추고 쫓! 귀를 기울인다.

이때, 화장실 앞 복도에서 대원 한 명이 소리친다.

최군건병

선임하사님, 여깁습니다! 화장실예요, 화장실!

141. G.P 화장실 - 밤

일제히 화장실로 몰려드는 대원들.

노수사관, 석유통을 집어던지고 총을 겨눈다.

정이병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수사관님...!

선임하사

그러지 마시오... 우리 당신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노수사관

그런다고 해결될 거 같나?
(도끼를 든 채 문을 등지고 선다.)

선임하사

여긴 GP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소... 다들 ... 지들 모가지에나 관심이 있지...
당신만 입을 다물면...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요...

노수사관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치료제도 없어.

선임하사

.....

노수사관

우리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죽었어...
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선임하사

닥쳐! 애초에 병 따위는 없었어... 그냥 지들끼리 미쳐
날뛰다가 싸 죽인 거야.... 노원사! 어떡할 거요?
선택을 하쇼! 우리 이미... 선택 했소...(총구를 겨눈다.)

총을 겨눈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선임하사

어서 열쇠를 주시오.

열쇠를 꺼내는 노수사관.

쳐다보는 대원들.

노수사관, 열쇠를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총을 쏘려하는 선임하사. 아직까지 정이병은 상황과약이
안 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수사관과 선임하사를 번갈아 쳐다본다.

이때,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군의관. 손에는 K2소총이 들려있다.
팽팽하게 맞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한다.
군의관 역시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대원들 역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돈다.

정이병

왜,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비키세요, 제발...

일촉즉발의 긴장상황.
이때 갑자기 정이병이 노수사관을 향해 쏜다.

정이병

으아아악! 비키라구 했잖아!!!

갑작스런 사격에 군의관도 대원들도 모두 사격을 한다.
쓰러지는 군의관. 쓰러지는 대원들.

142. 6.P 연병장 - 동틀녘

복구대 트럭 행렬이 연병장 안으로 들어온다.
트럭에서 내리던 대원들, 갑자기 들려오는 총성에 급히 머리를 숙인다.
쉴 새 없이 쏟아 붓는 듯한 총성.
숨죽인 채 기다리며 수신호를 주고받는 복구대원들.
한참 만에 총성이 멎는다.

143. 6.P 화장실 - 동틀녘

자욱한 화약 연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벽에 핏자국을 남기고 쓰러진 군의관의 모습, 노수사관, 선임하사 그리고 대원들.
사격자세 그대로 꼼짝 않고 서서 어린 아이처럼 흐느끼는 정이병.

정이병

흐흫... 난, 살고 싶어... 살고 싶다구...
바보같이... 죽고 싶진 않아...

144. G.P 복도 - 동틀녘

피투성이가 된 채 화장실에서 복도로 걸어 나오는 누군가의 모습.
정이병이다.
손톱이 빠지기 시작해 너털거리는 손가락 끝에는 열쇠가 들려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는 정이병.
자물쇠를 풀고 병커 철문을 연다.
환한 아침 햇살이 병커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문에 연결된 부비트랩이 작동한다. 콰콰콰광!
순식간에 치솟는 불길의 밖으로 나가려는 정이병의 몸을 집어삼킨다.
병커 안에 설치되어있던 모든 폭탄들이 연속적으로 터진다.
시커먼 불길 속에 타오르는 병커.

Epilogue.

145. ENG카메라 화면 (G.P 부식창고, 과거) - 밤

강상병이 화면 가득 잠힌다.

강상병

(카메라를 향해) 난 지금부터 우리 소대원을 모두
죽일 것이다... (무슨 소리가 나는지 카메라를 얼른 끄
다가 떨어뜨린다. 이때 테이프가 씹힌다.)

146. G.P 부식창고(과거) - 밤

장병장

(고개를 내밀며) 뭐해?

강상병

아 예... 아무 것두...

사라지는 고참.

강상병, 다시 카메라를 올린다.

강상병

나는 506G.P 강진원 상병이다. 원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병에 걸렸다. (목 부위를 보여주며)
이것이 표시다... 이 병에 걸리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 더욱 치명적인 건 한동안은 멀쩡해지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끝을 내야만 한다... 누군가 이 테이프를 발견하였을 땐, 우리 모두 죽어 있어야 한다...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만약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죽여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난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되었다는 걸 안다. 꼭 죽여라...

이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온다.

홍상병

여기서 뭐해? 사람들 다 모였는데...

카메라를 뒤로 한 채 병사를 따라 일어서는 강상병.

147. G.P 내무반(과거) - 밤

소대원들이 모여 있다.

주병장

누가 집합시킨 거야?

최일병

강상병이랍데요...

주병장

강상병? 이 또라이 새끼...

갑자기 불이 꺼진다.

정병장

뭐야? 누가 불 끄어?

148. G.P 내무반 앞 복도 (과거) - 밤

촛불이 켜진 케익을 들고 걸어가는 강상병.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평온한 표정이다.

천천히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강상병의 뒷모습.

개머리판을 접은 K2 소총을 뒤로 비껴 댄다.

웅성거리는 내무반으로 강상병이 들어가면 복도는 암흑으로 덮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다가 갑자기 섬광과 함께 총소리가 들린다.
복도 여기저기 찌렁찌렁 울리는 총소리.
총소리가 멎고 누군가 울부짖으며 도망쳐 나온다.
기어서 뒷걸음질 치는 병사(서이병). 카메라 쪽으로 프레임 아웃된다.
뒤이어 천천히 도끼를 질질 끌면서 나오는 강상병,
역시 카메라 쪽으로 프레임 아웃된다.
텅 빈 복도.
이때,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며 수색대원들이 들어온다.
한 명... 두 명...조심스럽게 총구를 움직이며 들어오는 수색대원들.
그 배경으로 천천히 크레딧 타이틀이 올라간다.

-THE END-